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 시티오브엔젤 | 2024 Vol.11

CITY OF ANGEL

2025년에도 대구와 함께





결혼기념일, 생일, 장수연 등 우리 삶을 기념하고 싶은 날,
먼 여행을 떠나기 어려울때, 도심에서의 편안함으로 힐링 해보세요.
바르미 인터불고호텔 대구에서 가성비 높은 휴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Bareumi Hotel Inter-Burgo

Special Offer
Package

호텔에서 놀자!

~~826,000~~ 정상가 기준 / 2024년 12월 기준

| 주 중
₩378,000 (2인기준/VAT 포함)

| 금, 토요일/공휴일 전일
₩418,000 (2인기준/VAT 포함)



패키지 혜택

-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호텔 조식(더뷔페 옛 인터불고 조식 뷔페 제공)
- 석식 (더뷔페 or 심비디움)
- 온천사우나 or 사계절 키즈풀
- 프리미엄 치맥(치킨 & 생맥주 2잔 제공)



더 뷔페 옛 인터불고



사계절 키즈풀



온천풀



인피니티풀

예약 문의 053)602-7173



엔젤클럽 10년, 길이 보인다

‘무슨 일이든 5년은 해야 감을 잡을 수 있고, 10년은 해야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2025년이면 엔젤클럽이 창립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엔젤클럽의 경우 처음에는 주위에서 ‘1~2년 하다 말겠지’라는 우려의 소리도 있었지만, 초기 엔젤 멤버들의 각고의 노력과 뒤따르는 엔젤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5년을 보내고, 어느새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FC가 1부로 승격했고, FA컵(코리아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축구전용구장 시대를 열었고, 모두가 바라던 아시아 무대로도 진출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무관중 경기가 열렸고, 2024년에는 피말리는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렀습니다.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엔젤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엔젤 여러분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관계없이 오롯이 그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엔젤의 서사는 엔젤클럽 매거진에 수록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엔젤클럽 매거진 ‘CITY OF ANGEL’ 11호에도 많은 엔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대구FC를 후원하며 엔젤의 초석을 다진 10년 엔젤님(2024년 기준)들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10년 엔젤님들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창립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으며, 그 엔젤정신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잠시 떠난 분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엔젤열전’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구에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을 키워낸 박상홍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님(글로벌로지스틱스 대표)을 만나봤습니다. 또 병원 내 음악회를 열어 환자들을 힐링하는 김주성 엔젤님(광개토병원 원장)을 ‘엔젤초대석’에 모셨으며, 대박에서 공연하는 게 꿈이었던 명예 엔젤 이운경 소프라노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승우 영스카이본부 상임부회장을 중심으로 성황리에 열린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에도 많은 에피소드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적인 서정시인 정호승 시인이 이날 엔젤 가입과 함께 엔젤 앰배서더로 위촉패를 받은 것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엔젤클럽의 새로운 10년을 제시할 ‘엔젤포럼’은 강병규 원장과 노성식 부원장의 대담을 통해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외에도 박상욱 엔젤의 홀인원이 나왔던 대구FC 유소년후원기금 마련 엔젤 친선 골프대회의 이모저모도 많은 사진과 함께 실었으며, 이 기금으로 바다 건너 일본으로 다녀온 대구FC 유소년 선수들의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헨즈커피 이야기》를 발간한 진경도 엔젤님, 대박에서 청춘을 불태우는 유튜버 손시와 김시, 다둥이 아빠 김승필 엔젤님, 무력무력 커가는 모태엔젤 주안이의 성장 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0년이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10년의 엔젤이야기를 담은, 엔젤클럽 매거진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엔젤클럽 매거진 CITY OF ANGEL 발행인 이호경

CITY OF ANGEL

대구FC엔젤클럽 매거진 시티오브엔젤
2024 Vol.11



대박의 왕 세징야 선수가 2025년에도 대구와 함께한다. 엔젤클럽 창립총회가 열린 2016년, 대구FC에 입단한 세징야는 그동안 엔젤회원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함께 해왔다. 세징야의 아내 아니엘리는 명예 엔젤이기도 하다. 세징야 부부는 2025년 창립 10주년을 맞는 엔젤클럽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며, 모두가 행복한 2025년이기를 기대해본다.

기간 | 2018년 10월 10일 등록

등록번호 | 수성, 바00011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발행기관 | (주)엔젤클럽

발행·편집인 | 이호경

편집장 | 김용하

편집위원 | 김중두, 손지훈, 조은비

제작 | 멀티에드(대표 김정미)

포토그래퍼 | 대구FC

디자이너 | 김현진

인쇄 | (주)케이비팩토리(대표 이분숙)

(주)엔젤클럽

42064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호텔인터불고 대구)

전화 | 053-602-7307

팩스 | 053-602-7306

이메일 | daeguangel@naver.com



16



32

COLUMN ESSAY

4 엔젤클럽 10년, 길이 보인다

10 COVER STORY

10 엔젤의 10년 엔젤과 함께한 세징야!



48



50



56



72



90

ANGEL WITH US

다이아몬드 엔젤列傳

16 박상홍 다이아몬드가너스 엔젤
글로비즈로지스틱스(주) 대표

엔젤 창립 10주년 특집

20 축구를 통한 대구사랑의 10년! 엔젤의 흔적을 찾아
32 엔젤포럼 강병규 원장, 노성식 부원장에게 듣는다
38 엔젤의 미래, 주안이의 성장일기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40 엔젤 10년을 노래하다!
대박에 펼쳐진 문화 예술 스포츠의 하모니
48 내가 만난 정호승 시인

엔젤 초대석

50 병원음악회로 마음까지 치료하는 낭만닥터
축구 통해 대구사랑 실천하는 축구천사 김주성 엔젤

축구시민주의 엔시오

56 대박의 청춘 '손시와 김시' 낭만을 외치다!

엔젤클럽회장배 축구대회

62 축구로 하나된 즐거운 추억

엔젤 컬처

66 신이 내린 선물 '커피'
사람의 손으로 전하고 책으로 기록하다
《핸즈커피 이야기》 펴낸 진경도 엔젤

Angel & Life

72 내 삶의 힘은 네둥이! 김승필 엔젤
76 ANGEL NEWS

엔젤프라자

78 시절의 마지막 날,
축구천사들의 행복한 라운딩

엔젤, 바다를 건너다

86 엔젤클럽 대구FC 유스팀
국제축구대회 참가 지원

DAEGU FC REPORT

90 2025 대구FC 라인업

ANGEL DIARY

102 엔젤클럽 스폰서

104 다이아몬드 엔젤

106 5년 엔젤

108 신입 엔젤 | 엔젤 명단 | 엔시오 명단



2025년에도 우리는 K리그1!

COVER STORY

2024. 12. 1.
승강 PO 승리 후 표호하는 세징야 선수

엔젤의 10년
엔젤과 함께한
세징야!

엔젤클럽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세징야와 명예 엔젤 아니엘리 축하 메시지 전해
엔젤클럽 공식 출범한 2016년 입단, 대구FC 역사 써 내려가



세징야와 명예 엔젤 아니엘리가
9월 'PLAYER OF THE MONTH'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Parabéns, Angel Club pelos 10 anos de história com o Daegu FC, o seu apoio durante todos esses anos foi muito importante e especial para o time. Que venham mais histórias a serem contadas nas próximas temporadas.

대구FC와 함께 한 엔젤클럽의 10년 역사를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성원은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 동안
매우 중요하고 특별했습니다.
다가오는 시즌에는 즐거운 이야기와 기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징야 아내 명예 엔젤 아니엘리



Parabéns, a todos do Angel Club pelo seu 10º aniversário, obrigado(a) por seu apoio contínuo e por todo apoio dado ao Daegu FC e a todos os jogadores, juntos somos mais Fortes! Juntos somos a Família Daegu.

엔젤클럽의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대구FC와 선수들에게 보내주신
변함없는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함께라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구가족입니다.

대구FC 공격수 세징야 선수



대박의 왕 세징야 선수가 대구FC와 계약을 체결한 뒤, 엔젤클럽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했다. 명예 엔젤인 세징야의 아내 아니엘리도 축하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 대구FC의 K리그1 잔류에 큰 역할을 한 세징야 선수는 2024년 12월 10일 대구FC와 재계약해 앞으로 엔젤은 물론 대구시민과 함께하게 됐다. 세징야는 2016년 대구에 입단한 이후 팀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다. 2024시즌에도 K리그1과 K리그 승강 PO를 포함하여 14골 8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고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K리그 통산 6번째 60-60을 달성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특히 K리그 승강 PO 2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며 대구의 잔류를 성공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징야는 “더 좋은 조건들로 타 구단의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대구FC에 오랫동안 함께하며 팬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다. 대구 팬 여러분들과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구단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미래엔 대구에서 아름답게 은퇴를 하고 싶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대구FC와 재계약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재계약 소감을 전했다.

- 1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부상을 안고도 세징야는 최선을 다했다.
- 2 사랑하는 다이애나와 함께 행복한 세징야 부부
- 3 엔젤클럽 로고가 새겨진 프리매치 셔츠를 입고 훈련 중인 세징야
- 4 2017년 엔젤클럽 매거진 세징야 선수 인터뷰 중 엔젤들과 함께
- 5 엔젤가 앞에서 화이팅을 외치는 명예 엔젤 아니엘리



1



3



4



5



2

아니엘리 명예 엔젤 위촉 등 엔젤클럽과도 오랜 인연

계약 체결 후 세징야 부부는 2025년이면 창립 10주년 맞는 엔젤클럽에게도 축하 인사를 보내와 엔젤에 대한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세징야 부부는 엔젤과 인연이 깊다. 공교롭게도 세징야는 엔젤클럽이 공식 창립식을 가진 2016년 대구FC에 입단해, 엔젤과 함께 2부리그에서 시작했다. 이후 1부리그 승격, 2018년 FA컵(현 코리아컵) 우승,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 등등 대구FC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갔다. 엔젤클럽에서는 2017년에 엔젤클럽 매거진에 세징야 선수와 그의 아내 아니엘리의 인터뷰 기사를 실기도 하는 등 처음부터 세징야 선수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당시 이호경 회장은 나전철기 보석함을 선물하기도 했다. 아니엘리는 엔젤클럽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브라질에 가면 좋은 이야기만 한다. 대구는 안전하고 친절하다. 오래오래 대구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아니엘리는 지난 2019년 3월 여러 엔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예 엔젤로 위촉됐다. 패션 모델 같은 미모를 지닌 그녀는 사실 축구선수 출신이다. 그래서 세징야에게 많은 조언을 하고 힘들 때는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한편 세징야 부부는 올해 딸 ‘다이애나’ 까지 얻어 더 뜻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그것도 세징야의 등 번호인 ‘11월 11일’ 태어났다는 사실! 세징야의 득녀 소식에 많은 엔젤과 축구팬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니엘리는 엔젤클럽이 대구FC 선수들을 위해 보낸 커피차에 세징야와 다이애나의 사진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인스타그램에 감사의 표시를 남겼다. 세징야 선수의 재계약 소식을 전해들은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은 “세징야 선수와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오랫동안 대구에서 생활했고, 대구에서 천사같이 예쁜 딸도 얻었다. 세징야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우리 가족 같은 존재다. 엔젤클럽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도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세징야 선수를 응원하고, 가족들을 더욱 더 사랑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CESINHA



ANGEL WITH US

우리는 축구팬들에게 행복을 주는 축구천사!



박상홍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
글로벌로지스틱스(주) 대표

박상홍 글로벌로지스틱스(주) 대표는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에서 고객들이
믿고 거래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키워냈다.

물류도 엔젤도

DIAMOND ANGEL

‘신뢰’가 우선

**‘신뢰와 책임’ 바탕으로 고객 가치 최우선하는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키워
시민들의 신뢰 얻으면 시민구단도 명문구단**

대구의 관문 대구북합환승센터 인근에 위치한 글로벌로지스틱스(주)(이하 'GB')에 들어서면 입구부터 환하다.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밝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인사를 건내는 직원들의 모습에 기분이 좋아진다. 대표이사실로 안내를 받고 기다리니 미소 가득한 박상홍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이 반갑게 맞이한다. 환절기라 감기 기운에 목이 가라앉았다고 했지만, 특유의 웃음은 잃지 않았다. “사무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라고 하자, 박 대표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임직원들의 몸에 배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요.”라며 웃어 보인다.

GB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운송, 포장, 창고업, 통관 및 업무 대행, 물류컨설팅, 고객 맞춤형 Supply Chain Management 등 물류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항상 빠르고 안전한 물류 서비스와

고객의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고객 중심의 기업이며,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세계적인 물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륙도시인 대구에서 탄탄한 물류기업을 20여 년 이끌어 왔다면 박 대표의 ‘내공’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내공’은 역시 ‘기본’에 있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묻곤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과 신뢰, 책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회사의 내공이지요. 기본만 잘 지켜도 회사를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으며, 어떤 위기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을지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GB의 홈페이지에는 ‘믿을 수 있는 당신의 파트너’가 먼저 나온다. 누가 신뢰할 수 없는 회사에 거래하고 싶을까? 박 대표는 항상 그런 기본을 중요시하며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한다.

시민구단 대구FC를
내가 이끈다는 생각으로
축구를 사랑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엔젤운동에 참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구FC 역시 엔젤들처럼
시민들의 신뢰를 얻으면
반드시 명문구단이 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IMF 앞두고 창업

박 대표는 IMF가 터지기 전인 1998년 5월에 창업했다. “10년 동안 물류 관련 직장에서 일하면서 창업하게 됐는데 당시에 대구에서 최고로 서비스를 잘하는 물류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시작했지요.” 하지만 당시는 대구의 건실한 기업들도 줄 도산하던 때였다. 창업에 주저할 만도 할텐데 박 대표는 강단 있게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외환위기로 경기는 최악이었지만, 환율이 높아서 수출기업에는 유리한

점도 있었어요. 그런 기업들을 도와준다면 충분히 틈새시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수출이 늘어나자 대구지역의 섬유 업체들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박 대표는 움츠러들었던 섬유 업체들이 고환율로 수출의 길이 열리자 이를 적극 돕기로 한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물류비를 줄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이라. 그렇게 GB는 물류의 길을 열었다.

박 대표는 직장에 다닐 때도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배에 선적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지금이야 컨테이너로 운송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트럭을 이용해야 했다. 트럭에 물품을 싣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 무사히 부산항에 도착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면 밤을 꼬박 새울 때도 많았다.

“요즘은 컨테이너로 수송하다 보니 제품의 도난 사고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만 하더라도 트럭에 싣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트럭을 차고지에 세우지 않고 자기 집 근처에 세우거나 기사들이 휴게소에서 잠을 자다가 도난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분들에게 차고지에 정확하게 차를 대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도착할 때까지 거듭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런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 박 대표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꾸준히 쌓아왔다. 직장인 박상홍의 좋은 습관은 창업 후에도 이어졌다. 그래서 GB와 인연을 맺게 되면 대부분 오랫동안 거래를 한다. 물류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바로 재산이다. 지금도 박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평소에 고객사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만들어 가라고 주문한다. 이런 파트너십은 전략적 제휴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맨파워도 중요하다. 아무리 AI시대라고 하지만 중요한 일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박 대표가 역량 있는 물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려고 힘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족은 나의 힘

사업을 하다 보면 늘 바쁘다. 그래서 박상홍 대표는 집안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다. 가정이 든든해야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내 주원숙 여사는 박 대표가 집에서 조용하게 쉴 수 있도록 편하게 해준다. 또 늦게 손님을 만나고 다니는 부분도 잘 이해해준다. 실제로 주 여사는 첫눈에 봐도 성격이 활달하고 긍정적이다. 지난 5월 열린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식에 박 대표와 함께 참석한 주 여사는 “엔젤클럽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엔젤’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저도 내조를 하면서 아는 지인분들에게 엔젤클럽 홍보를 많이 하겠다.”라고 환하게 웃음지어 참석한 엔젤 임원과 회원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 후 대구FC경기가 있는 날에도 주 여사의 밝은 미소를 볼 수 있었다. 박 대표는 바쁜 일정으로 축구 경기를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관람하러 올 때는 가능하다면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과 동반한다. 가족은 언제나 박 대표에게 큰 힘이다.

직원의 말에 귀 기울이다!

평소에도 박상홍 대표는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 물론, 대표로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뜻을 존중한다. 엔젤 가입도 마찬가지다. 당초 엔젤클럽에 가입할 생각이 있었던 박 대표는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

“어린 시절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고, 평소에도 대구상공회의소의 회의에서 대구FC엔젤클럽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가입하려고 했는데 마침 축구를 좋아하는 직원들이 있어, 그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입하게 됐습니다.” ‘엔젤 가입 후 아는 분들도 많아 너무 좋았다’는 박 대표는 “축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인 것 같다. 시민구단 대구FC를 내가 이끈다는 생각으로 축구를 사랑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엔젤운동에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박상홍 대표에게 가족은 큰 힘이다. 역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다.



창립 10주년 특집

축구를 통한 대구사랑의 10년!

엔젤의 흔적을 찾아



2016 대구FC 출정식

- 02. • 엔젤 단톡방 개설-SNS 소통 활성화
- 03. • 2016 대구FC 출정식 엔젤 30명 참가
- 04. • K리그 대구FC 홈 개막전 식전행사로 엔젤클럽 첫 가입식 개최
- 07.25. • 창립총회 개최(이호경 초대회장 선출)
- 11. • 비전선포식, 엔젤회원 1004명 가입목표
- 12. • 사무실 개소(호텔인터볼고 대구) - 각종 집기류, 인테리어 엔젤 기증

- 01.20. • 엔젤회원 대구FC 중국 쿤밍 동계 전지 훈련장 격려 방문
- 06.16. • 제1회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 초청 축구대회 개최
- 08.06. • 소액후원 엔젤인 '엔시오Ancio(엔젤Angel+소시오Socio)' 실시
- 11.14. • 금복문화재단 '제32회 금복문화상' 특별상 수상
- 12.05. • 엔젤 엔시오 200여 명 2018하나은행FA컵 결승 1차전 울산경기 원정 응원
- 12.08. • FA컵 결승 2차전 홈경기 엔젤, 엔시오와 등 입장, 대구FC의 첫 우승
- 12.13. • 엔젤회원 대구축구전용구장(현 대구M뱅크파크) 방문, 시설물 견학 및 의견 제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01. • 이호경·강병규·배성혁 등 3명 '릴레이 후원사업' 공동발기인으로 위촉
- 조광래 대구FC 사장과 이도현 체육과장 참석
- 02. • 배장수(진명전력(주)) 대표이사 1호 회원 영입
- 이때부터 '릴레이 후원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 '엔젤'로 부르기로 함

뜻있는 시민들이 일어섰다.



- 01.26. • 1호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 (삼보모터스 이재하 회장)
- 09.30. • 9월 24일 전북현대전 심판 오심에 대한 엔젤 공식 항의
- 10.16. • 엔젤클럽 항의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 과징금 1000만 원 대구FC에 부과
- 10.21. • 홈경기 당일 엔젤클럽 회원, 과징금 현장 모금 (모금액 : 2,250여만 원)
- 11.28. • 천사데이 개최(엔젤회원 1004명 달성 기념행사)
- 12.30. • 엔젤회원 2018년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주자 참여



- 01.14. • 대구FC, 2018 FA컵 우승기념 '고담day' 축승회 참석
- 02.09. • 대구FC 중국 상해 전지 훈련 격려 방문
- 03.17. • 명예 엔젤 위촉식 (조광래 대표이사, 세징야 선수 부인 아니엘리)
- 04.10. • ACL아시아챔피언스리그 대구FC 원정경기(vs 산프레체 히로시마) 엔젤원정응원



2022년 조해녕 전 시장 주석 기증

- 05.28. • 제2회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 친선 축구대회 개최
- 08.31. • 제2회 축구꿈나무 후원기금 마련 대구FC엔젤클럽 골프대회 개최
- 10.16. • 대구FC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개최(김찬상무 전)
- 조해녕 전 대구광역시장 대구FC주식 2만주 엔젤클럽 기증 "엔젤클럽은 대구FC 주주정신 계승!"
- 12.05. •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 1호 탄생 (10년 후원 약정 : 김영만 우성철강(주) 회장)



2024 엔젤포럼

- 02.15. • 선수단 남해 전지 훈련장 격려 방문
- 05.22. • 대구FC 유소년 축구단 후원금 전달
- 06.19. • 대구FC엔젤클럽 포럼 시범 개최
- 08.10. • 대구FC엔젤클럽 창립 10주년 기념 공연 개최 (헨젤과 그레텔)
- 10.31. • 대구FC 유소년 축구단 후원기금 마련
- 대구FC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 개최
- 11.03. • 대구FC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개최



2023 엔젤동산 제막식

- 04.21. • 엔젤동산 제막식(대구M뱅크파크 광장)
- 06.05. • 환경의 날 기념,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대구M뱅크파크 일대 플로깅 캠페인 실시
- 06.24. • 대구FC엔젤클럽 초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개최
- 10.21. • 대구FC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개최 (전북현대 전)
- 10.31. • 대구FC 유소년 축구단 후원기금 마련 대구FC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 개최
- 12.05. • 전 대구FC선수 이근호 명예 엔젤 위촉

척박한 축구문화에

엔젤도시의 기초를 세우다



많은 구단과 지역에서 벤치마킹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대표적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사례'로 소개하는 대구FC엔젤클럽.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엔젤클럽의 이야기도 사람에서부터 시작됐다. 2025년이면 창립 10주년을 맞는 엔젤클럽은 초창기 척박한 대구 축구환경에서 시작했다. 당시 대구FC는 K리그챌린지(2부) 소속이었고, 6만 7천 석 규모의 대형 종합운동장인 대구스타디움은 썰렁하기만 했다. '1~2년 하다 말겠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초기 엔젤은 시민구단의 존재 이유와 대구정신을 알리며 '축구사랑 대구사랑' 캠페인을 벌였다. 우리는 그들을 '엔젤레전드'라 부른다. 그들의 흔적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가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대구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모든 이야기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

2013년 경 대구FC 혼란의 시기였다. 1부리그인 K리그 클래식에 있었지만, 하위권에 머물며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때다. 당시 김범일 대구시장도 대구FC가 고민거리였다. 같은 시기에 대구시 감사관(개방형직위)으로 근무했던 강병규 상임부회장이 대구FC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그때부터 그는 어떻게 하면 '대구FC가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명문시민구단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다. 그 고민은 친분이 있었던 이호경 회장과 함께하게 됐다. 그러던 사이 대구FC는 2013년 시즌을 13위로 마감해 2014년에는 2부로 강등되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민들은 대구FC를 외면했고, 홈구장 대구스타디움을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

2014년 6월 권영진 대구시장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구단주가 됐다. 평소 축구사랑이 남달랐던 권 시장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정상화에 관심이 많았다. 조광래 대표이사를 영입했고, 중장기 지원책을 세웠다. 축구전용구장과 선수단 숙소 등 대구FC 숙원사업도 거기에 포함됐다. 문제는 시민들의 사랑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다. 당시 대구시체육진흥과장이었던 이도현 엔젤은 이 문제로 이호경 회장(대영에코건설(주) 회장)과 강병규 부회장(세영회계법인 대표), 그리고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를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마침 식당을 찾았던 배성혁 덤프집행위원장(성우기획 대표)도 우연찮게 함께했다. 사실 이 회장은 이승현 현 두산감독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야구 마니아다. 대구FC는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모임 후 이호경 회장은 대구스타디움에 조성된 주주동산을 찾았다. 수많은 시민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산을 보면서 이 회장은 시민구단 대구FC를 살리는 길이 단순히 프로축구팀 하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구사랑운동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발이 넓고 추진력이 남달랐던 이호경 회장은 우선 주위의 가까운 사람과 이 고민을 함께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마침 지역에서 자리 잡은 이 회장과 주변 인물들은 '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던 때였다. 먼저 '축구를 통해 대구사랑을 실천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거창하게 시작하기 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릴레이식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것이 엔젤클럽의 시작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엔젤클럽'이란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 이름은 대구FC에서 헌사한 이름이다. 대구FC를 든든하게 후원하는 축구천사라는 의미에서 '엔젤'로 지어준 것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후원이 시작됐으며 2016년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엔젤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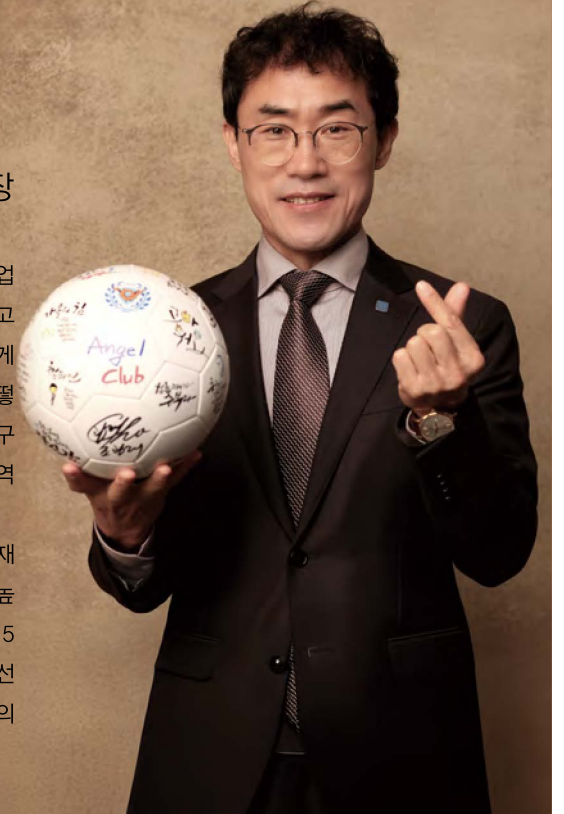
ANGEL CLUB 10 YEAR

엔젤클럽 창립 10주년! 제2의 엔젤운동 펼칠 것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 | 대영에코건설(주) 회장

10년 전인 2015년, 50대 초반의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은 평범한 디벨로퍼 사업가였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 회장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공헌할지 고민했다. 좀 더 의미 있는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시민구단 대구FC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바뀌었다. "우리 지역에서 기반을 잡으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시민구단 대구FC의 어려운 처지를 들었죠. 문득 축구를 통해 대구시를 사랑하는 길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역 공헌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축구사랑 대구사랑'이라는 슬로건이다. 실제로 축구를 공공재로 보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시민들의 힘으로 창단한 시민구단이라면 공공성이 더 높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벌여온 '엔젤운동'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대구FC가 2부인 시절, 뜻있는 시민들이 시민구단 대구FC를 살려 보자고 해서 나선 것이 엔젤클럽입니다. 올해가 창립 10주년인 만큼 첫 출발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제2의 엔젤운동을 일으키겠습니다."고 말했다.



100년을 향하여! 엔젤클럽의 설계자

강병규 상임부회장 | 세영회계법인 대표

도시나 국가는 기본적인 설계자가 있다. 엔젤클럽의 설계자는 강병규 상임부회장(세영회계법인 대표)이다. 엔젤클럽의 정관, 행동강령, 그리고 후원금 납부 시스템 등 엔젤의 근간을 만들었다. 사비를 들여 엔젤클럽의 앱을 제작해 많은 엔젤들이 사용토록 했다. 그리고 엔젤의 정신과 존재 이유를 늘 강조했다. "엔젤클럽은 우리 대구시민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프로축구단을 후원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운동'이지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10년이란 시간동안 유지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도 강 부회장은 엔젤클럽 내 운영본부장을 맡아 엔젤클럽의 비전을 수립하고 전체 업무를 기획하는 등 엔젤클럽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새해인 2025년에는 엔젤클럽 창립 10주년을 맞아 엔젤클럽 인문학 프로젝트인 '엔젤포럼'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타의 단체와 차별화된 엔젤포럼을 통해 엔젤클럽을 지역 최고의 커뮤니티로 만든다는 것이 새로운 10년을 맞는 마음가짐이다.



‘1호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배장수 엔젤 | 진명전력(주) 대표

배장수 엔젤(진명전력(주) 대표)은 엔젤의 상징이다. 1호 엔젤이기 때문이다. 이호경 회장과 강병규 부회장의 추천으로 1호가 됐는데, 충분히 그럴 만하다. 배장수 엔젤은 대구 동구 무태에서 태어나 66년 동안 이사하지 않고 한곳에 산 진짜 토박이 대구사람이다. 또 40년 이상을 축구동호인으로 활동했다. 추천을 받았을 때도 “축구를 사랑하고 대구도 사랑하니 엔젤 가입은 당연합니다.”라고 호응했다. 배장수 엔젤은 1호라는 타이틀이 무거울 만도 하지만,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언젠가 은행에 갔더니, 은행원이 제가 엔젤인지 알아봤습니다. 축구팬인 그가 대박에 왔다가 전광판에 나온 제 이름을 보고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1호 엔젤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10년을 맞는 배장수 엔젤의 감회도 남다르다. “예전에 독일이나 프랑스로 여행을 갔을 때 축구장을 찾곤 했는데, 꼭 찬 경기장과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언제 이런 분위기가 될까? 하고 생각했는데 요즘 대박을 가보면 스스로 놀랍니다. 마치 유럽의 축구장 느낌이 들어요”. 아울러 “엔젤회원이 되어 보면 축구가 얼마나 공적인 스포츠 종목인지, 시민구단이 얼마나 시민정신을 잘 대표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기면 좋겠지만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구를 통해 대구를 사랑할 수 있고, 시민이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엔젤클럽이 10년을 이끌어온 동력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새해 벽두부터 후원금 납부 10년째 이어온 ‘엔젤루틴’

최익진 엔젤 | (주)풍국면 대표

최익진 엔젤((주)풍국면 대표)은 새해 벽두에 실천하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 엔젤클럽의 일원으로서 대구FC를 위한 후원금을 납부하며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이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다. 첫 출근하자마자 후원금을 보냈다. 어느새 10년째 이어오는 그만의 긍정적인 습관이다. “시민구단 대구FC를 위한 좋은 일인 만큼 잊지 않기 위해 새해 벽두에 후원금을 보냅니다.” 대구FC를 위한 그만의 새해 다짐이었을 것이다. 최익진 엔젤은 대구에서 자랐고, 축구 명문 청우고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래서 “엔젤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엔젤클럽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2024년에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박이 대구시민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에 흐뭇해 한다. 최근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세상의 트렌드를 읽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존의 기본이다. 이런 점에서 최익진 엔젤은 2025년에는 대구FC 역시 과거의 틀을 깨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대구FC와 함께해서 행복했던 지난 10년

이태훈 엔젤

2023년 7월 1일 안개 자욱한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이태훈 엔젤은 그라운드를 지긋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루 전날 제주에 온 이태훈 엔젤은 정영준, 최명환, 남경문 엔젤과 함께 제주를 홍보했다. 놀란 점은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대구를 응원하러 온 팬들을 많이 만난 것이었다. 대구FC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엔젤이 되기 전 제주와 엔젤이 된 후의 제주는 확실히 달랐다. 원년 엔젤로서 보람이 컸다. 그렇게 대구FC와 함께한 10년이 고마웠다. 과거 이태훈 엔젤은 ‘시티 오브 엔젤’과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봉사, 후원단체가 있었지만 엔젤클럽은 그 어떤 봉사활동보다 보람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대구FC가 있는 한 엔젤클럽이 함께할 것이고 엔젤클럽이 있는 한 힘닿는 대로 후원하겠습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대박에도 자주 모습을 보였던 이태훈 엔젤이 최근에는 몸이 좋지 않아 활동이 뜸해졌다. 빠른 쾌유를 빈다.

엔젤단독방 제안 등 상임이사로 눈부신 활약

정영준 엔젤 | (주)다원아이디 대표

대박에서 만난 정영준 엔젤((주)다원아이디 대표)은 언제나 경쾌하다. 엔젤 깃발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신나게 응원한다. 원래 야구장에 살다시피 한 그였지만 엔젤 가입 후로는 완전 축구 마니아가 됐다. 초기 엔젤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그는 “드넓은 대구스타디움에서 수백 명의 관중이 떠들썩 떠들고 있을 때는 마치 무관중 경기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뛰었습니다. 주위 분들을 만나면 릴레이를 했고, 많은 아이디어를 냈었죠.”라며 지난날을 떠올렸다. 때로는 상임이사로써 엔젤 발전을 위해 날카로운 제안도 서슴치 않았다. 엔젤클럽 단독방도 그의 제안으로 만들어 졌다. 첫 댓골 역시 정영준 엔젤의 몫이었다. 중요한 엔젤 행사에는 언제나 참여했고, 상임이사로서도 최선을 다했다. 중국 전지 훈련지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2019년에는 대구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열렸던 히로시마 원정 응원에 나서기도 했다. 정영준 엔젤은 것처럼 엔젤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엔젤의 레전드다.





브라보 마이 엔젤 라이프!

김재홍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

| 대호약품 대표

진 웨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를 연상케 하는 김재홍 다이아몬드 아너스 엔젤(대호약품 대표)도 엔젤의 레전드다. 2015년 4월 3일 첫 후원금을 납부한 그는 엔젤 비전선포식, 엔젤천사데이 등 엔젤의 굵직한 행사에 언제나 참여했다. 처음에는 일반 엔젤로 활동했으나 지난 2023년부터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로 후원금을 대폭 늘였다. 대박에서는 그의 모습을 자주 볼수 없지만, 그는 중요한 행사마다 늘 조용히 후원을 하고 협찬하는 등 말 그대로 엔젤의 키다리 아저씨다. 김재홍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은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긍정한다. 그래서 '덕분'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대구FC' 덕분에 축구를 사랑하게 됐고, '엔젤' 덕분에 시민정신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다른 그의 상징은 '브라보'다. 누구를 만나든 그는 '브라보'를 외치며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앞으로도 김재홍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의 '브라보 엔젤 라이프'를 기대해 본다.

꿈꾸는 축구천사

이동경 엔젤 | (주)도원투자개발 대표

이동경 엔젤((주)도원투자개발 대표)은 자유롭게 꿈꾸고, 그 꿈을 현실화하는 디벨로퍼다. 부동산 개발기획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다보니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는 디테일을 잃지 않는다. 경북대 건축과 재학 시절에는 대구미술대전 건축 부문 최우수상, 한국건축대전 입선, 졸업작품 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평소에도 문학, 사회,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방면의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런 그가 엔젤클럽 원년 멤버로 함께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마디로 '엔젤은 될 성부른 떡잎'이었던 것이다. 이동경 엔젤의 생각대로 초기 엔젤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10년을 이어왔다. 이동경 엔젤은 이 기간 동안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 엔젤클럽 매거진 제작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때 부회장을 맡아 큰 역할을 했다. 5년 엔젤 기념패를 받았을 때 이동경 엔젤은 "초창기 시민구단 대구FC를 살려 보자는 공감대가 뜻있는 시민들 사이에서 형성됐습니다. 축구를 통해 대구를 사랑한다는 꿈같은 이야기가 멋있어 함께 동참했지요. 그 사이 대구FC도 많이 성장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이동경 엔젤의 새로운 꿈이 기대된다.



사무국 지원 등 엔젤의 근간을 만들어준

서기수 엔젤 | 즐거운세상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회장

엔젤클럽 사무국은 호텔인터불고 대구 안에 있다. 엔젤클럽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도 사무국이 안정되면서부터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서기수 엔젤(즐거운세상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회장)의 힘이 크다. 가장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다. 초창기 엔젤클럽은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 정착하지 못했다.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련 업무도 늘어났고, 엔젤들이 찾을 사랑방도 필요했다. 이를 지켜본 서기수 엔젤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인터불고 대구에 사무국을 불러들인 뒤 안팎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6년부터 시작됐으니 벌써 9년째다. 2018년에는 지금의 사무실로 리모델링해 이전했으며, 포토존까지 설치해 엔젤클럽의 또 다른 성지가 되고 있다. 서기수 엔젤은 엔젤클럽의 순수함을 높이 산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에 나서는 엔젤클럽은 또 하나의 지역 사랑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뜻에 공감해 후원하고 있으며 엔젤클럽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요." 서기수 엔젤의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많은 엔젤들은 오늘도 엔젤사무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엔젤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 바탕에는 서기수 엔젤이 있다.

수박화채로 승리를 기원한

권일경 엔젤 | (주)위드 대표

여름이면 생각나는 엔젤이 있다. 바로 권일경 엔젤((주)위드 대표)이다. 대구스타디움 시절, 해마다 여름이면 권일경 엔젤은 수박화채를 한 박스 만들어와 나눠주며 무더위를 식혀 줬다. 권일경 엔젤이 나눠주는 수박화채는 그냥 음식이 아니다. 거기에는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고, 이는 곧 하나의 징크스를 만들었다. 바로 '권일경 엔젤이 수박화채를 만들어 오는 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당시만 하더라도 2부리그에 뛰던 대구FC는 승격을 위해 1승이 절박했다. 그만큼 권일경 엔젤의 바람도 남달랐을 것이다.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더위를 날리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승리를 바랐던 수박화채 맛이 여름이면 늘 떠오른다. 권일경 엔젤은 자신의 엔젤 가입 순번을 기억하고 있다. 바로 13번째다.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축구칼럼니스트로 활약 중인 안상영 엔젤을 릴레이한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2025년 여름, 엔젤 창립 10주년을 맞아 대박에서도 권일경 엔젤의 수박화채 파티를 기대해 본다.





회원 확대 기여한 엔젤의 마당발

박주현 엔젤 | 대구과학대 교수

2015년 축구천사가 된 박주현 엔젤(대구과학대 교수)은 엔젤클럽의 든든한 초석 역할을 해왔다. 발이 넓기로 소문난 박주현 엔젤은 초기부터 많은 엔젤들을 릴레이했으며 대외적으로 엔젤을 알리는 데도 한몫해 왔다. 매년 연말이 가까워지면 엔젤클럽 사무국을 직접 찾아,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후원금도 함께 납부한다. 2024년 12월에도 호텔인터볼고 대구에 있는 엔젤클럽 사무국을 방문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소회를 나눴다. 박주현 엔젤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경제상황으로 많은 엔젤님들이 고생하셨을 테고, 대구FC도 시즌 막바지까지 승강 플레이오프를 펼치며 엔젤은 물론 대구시민들을 애태웠습니다. 엔젤 여러분, 그리고 대구FC 선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파이팅해서 연말에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박주현 엔젤은 엔젤클럽 축구팀인 엔젤FC 회원으로도 열심히 활동한다. 스포츠를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그의 호방한 성품은 어디서도 드러난다. 대구FC 유소년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년 경기위원장으로 대회 준비는 물론 당일 경기 진행을 도맡아 한다. 그 덕분인지 매년 골프대회는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다. 10년 동안 버려진 '원조 엔젤'의 포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박주현 엔젤의 활약이 기대된다.



엔젤의 언성hier로

이승현 엔젤 | (주)동서개발 대표

‘언성hier로’라는 말이 있다. 엔젤클럽의 많은 회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겉으로 나서기보다는 묵묵히 후원하며 축구사랑, 대구사랑을 실천한다. 이승현 엔젤((주)동서개발 대표)도 언성hier로 중 한 명이다. 조금 늦게 엔젤에 합류했지만, 마음만큼은 뒤쳐지지 않았다. 후원의 열기가 필요했던 초창기에는 기본 후원금 이상의 돈을 조용히 보내왔다. 또 대박을 거의 찾지 않지만, 늘 대구FC 소식은 챙긴다. ‘축구를 좋아하는 한 시민’이라는 이승현 엔젤은 “우리 지역의 축구팀이 더욱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팀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엔젤에 동참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대구FC의 발전을 위해서 작으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런 마음 하나하나 모여 앞으로 엔젤클럽은 10년을 넘어 100년으로 향할 것이다.

다시 새로운 10년을 향해

조두석 엔젤 | (주)애드메이저 대표

조두석 엔젤((주)애드메이저 대표)은 처음에는 대구FC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지방재정이 들어가면서도 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대구FC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었던 것. 그런데 ‘위기에 처한 시민구단을 살려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대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엔젤클럽의 철학에 생각이 바뀌었다. 그렇게 초기 엔젤과 의기투합했다. 그 후, 조두석 엔젤은 만나는 사람마다 엔젤클럽을 설명하고 가입을 추천했다. 그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쌓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조두석 엔젤은 “엔젤클럽은 ‘우리가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시민들에게 심어준 점에서 의미 있는 ‘대구 사랑운동’인 것 같습니다.”라고 엔젤의 가치를 설명했다. 2024년의 대구FC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등 많이 힘들었다. 엔젤 창립 시기가 다시 떠오르는 이유다. 10년 전 조두석 엔젤의 말처럼 ‘우리가 다시 힘을 모을 때’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엔젤클럽이 새로운 10년을 가열차게 시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엔젤의 귀환, 더 많은 엔젤을 기다리며...

배성혁 엔젤 | 덤프집행위원장/(주)예술기획 성우 대표

1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다. 엔젤클럽에서도 1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다. 전국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초창기 대구가 직격탄을 맞았다. 많은 엔젤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엔젤들은 위기를 극복하자며 후원금을 내고 봉사에 나섰다. ‘힘내라 대구경북’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대박에는 시민들의 정신을 담은 깃발 1만 장을 걸며 마음을 모았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진 일부 엔젤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기도 했다. 최근 잠시 쉬었던 엔젤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엔젤클럽 결성을 위한 첫 번째 모임에 참석했던 배성혁 엔젤(덤프집행위원장/(주)예술기획 성우 대표)이 최근 귀환했다. 지역사랑에 대한 열정과 탁월한 기획력으로 엔젤클럽 탄생에 크게 기여했던 만큼 그의 귀환은 반갑다. 배성혁 엔젤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한동안 엔젤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늘 대구FC 경기를 챙겨보고 엔젤과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만큼 초기 엔젤의 정신으로 엔젤클럽과 대구FC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엔젤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더 많은 초기 엔젤들이 귀환할 것을 기다리며 새로운 10년을 맞이한다.

엔젤포럼

강병규 원장, 노성식 부원장에게 듣는다

엔젤클럽이 2024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엔젤포럼'이다. 지난 2021년 엔젤회원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추진키로 하고 장소 및 강사까지 섭외가 됐지만,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보류되고 말았다. 그리고 2024년 초 엔젤포럼을 추진할 조직을 구성하고 재추진 중이다. 그동안 엔젤포럼을 준비해온 강병규 엔젤클럽 상임부회장이 원장을 맡았고, 부원장에 노성식 엔젤클럽 운영이사를 위촉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24년은 준비 기간으로 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은 10년 엔젤 탄생의 해다. 그리고 2025년은 엔젤 창립 10주년의 해다. 10년이 흐른 만큼 엔젤클럽에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엔젤 10주년을 맞아, 엔젤정신을 다시 일깨우는 한편 엔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엔젤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어갈 '엔젤포럼'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강병규 원장과 노성식 부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 과정과 앞으로 엔젤포럼을 어떻게 추진해갈지 들어봤다.(편집자 주)

대
담
자



강병규 원장



노성식 부원장

새로운 엔젤 10년을 열어갈 '인문학 프로그램'
축구, 인생, 문화,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
엔젤은 물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마당
2024년 준비 기간 거쳐 2025년에 본격 출범

엔젤의 새로운 10년 열어갈 동력

엔젤포럼,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원장 엔젤이 출범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엔젤이라는 씨앗이 날아와 나무가 되고, 나무들이 자라서 숲이 되고, 다시 숲이 울창해지면 숲속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 졌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그랬던가요,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생이 온다고. 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엔젤클럽'이라는 숲속에 숨어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이고 나눠 보자는 시도입니다.

부원장 엔젤클럽의 기본 취지가 대구FC를 명문자립 시민구단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엔젤 가입 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는데, 정작 축구장에는 오는 분들은 많지 않아 일일이 얼굴을 뵈지 못했어요.

원장 바로 그런 이유로 엔젤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엔젤클럽을 시작할 때 '축구'보다는 '지역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시민구단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그런 주장이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 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엔젤 중에는 축구경기를 관람하며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은 축구와 관련 없이 후원만 하고 있으시지요. 이제 10년



이 된 만큼 이런 분들에게 좀 더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뭔가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엔젤포럼이 바로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원장___ 사실 엔젤클럽의 경우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회원 간의 교류에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엔젤포럼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교류하다 보면 서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배우는 것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엔젤포럼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원장___ 저를 비롯해 많은 분이 각종 CEO아카데미나 포럼 활동을 해보셔 아실 테지만 엔젤포럼과는 내용과 취지의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아카데미의 명분은 CEO로서의 공부인데 실질은 ‘네트워크’가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어요. 자칫 친분 모임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엔젤포럼은 네트워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선, 포럼을 주최하는 엔젤클럽 자체가 사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임이란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엔젤포럼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좀 더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획 의도가 다르다 보니, 진행되는 과정도 다를 것이고,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공감하실 분도 많을 것입니다.

부원장___ 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보았습니다. 모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엔젤포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면 그 구성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젤포럼’은 별도로 회원을 구하기 보다는 기존 엔젤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없이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장___ 올해 제일 큰 성과가 바로 노성식 부원장님을 찾은 것이지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문화소양이 높고 스마트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엔젤포럼을 대하는 태도

엔젤에게 보람과 가치를 주는 포럼



엔젤포럼을 기획한 강병규 원장

와 자세만 봐도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지요. 책임감도 남달라 엔젤포럼이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무를 맡아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원장___ 저야말로 원장님이 닦아 놓은 터에 벽돌을 쌓고 있을 뿐입니다. 든든합니다. 원장님과 협의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원장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과연 엔젤님들이 포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엔젤포럼의 실무를 맡은 노성식 부원장



엔젤포럼 강사로 나선 대구FC 선수출신 1호 엔젤 김귀현

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죠. 주제, 장소, 시간 등에 걸쳐 10여 개의 항목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주제는 ‘축구’를 가장 선호했고, 시간은 ‘퇴근 후’, 그리고 장소는 ‘대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설문을 토대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개최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진행한 엔젤포럼은 어땠습니까?

원장___ 사실 전문적인 아카데미나 포럼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난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엔젤분들이 ‘축구’ 관련 주제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첫 번째는 ‘축구와 시민구단 대구FC’에 관해서 다뤘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호경 회장이 직접 강사로 마이크를 잡았는데, 회원들이 엔젤클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지요. 회장은 이날 선물도 준비하고 뒷풀이까지 책임져 주셨는데 엔젤들이 모처럼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대구FC 선수 출신 1호 엔젤인 김귀현 엔젤이 강사로 나서주셨어요. 토크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역시 반응이 좋았습니다.



포럼에 폭 빠진 참가자들

부원장___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30여명 그리고 2회부터는 50여 명이 참석하며 강의장 분위기를 달구었습니다. 또 세 번째 포럼에는 엔젤뿐만 아니라 엔시오와 일반인들까지 참여한 것도 희망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박 투어를 한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는 라커와 미디어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는 인터뷰실을 보면서 어떻게 프로경기가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원장___ 출발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포럼 개최 이후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우리 엔젤회원들은 수긍하고 감동을 받았지만,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엔젤이나 엔시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축구나 엔젤클럽과 관련된 주제 외에도 일반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원장___ 아무래도 강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호경 회장님과 엔젤사무국에서 적극

시민운영 통해 포로그램 보완



노성식 부원장이 포럼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나서주셨는데,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폭넓은 강사 확보가 포럼 성공 여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젤포럼을 전담 운영할 조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엔젤포럼 개최 시기와 강사 섭외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엔젤포럼은 예전에 한 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 지난 2021년 엔젤포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매주 수요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장소는 대구아트센터를 섭외했습니다. 미술, 음악,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어서 엔젤포럼과는 상당히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주제는 축구, 인문학, 예술, 비즈니스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다 구성했고, 강사까지 섭외해서 1회 공지까지 나갔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은?

원장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한 엔젤포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엔젤포럼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 ‘엔젤포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들을 모셔서 자주 모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구할 생각입니다. 운영위는 실무가 중요한 만큼, 지금처럼 노성식 부원장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원장 우선 사무국과 협의하여 운영위원들을 위

비활동 엔젤, 일반인을 위한 콘텐츠 확보해야

촉하고, 원장님을 모시고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프로그램 진행방식 및 강사섭외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진행방식도 기존 엔젤회원들의 경우 토크 형식으로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진은 외부 강사는 물론 엔젤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원장 사실 유명한 강사들의 좋은 강의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엔젤의 이야기는 아무나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저는 지난 10월에 진행한 김귀현 엔젤님의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대구FC 선수 출신이자, 지구 반대편의 아르헨티나 첫 번째 한국 프로선수라는 점, 또한 올림픽대표 출신이라서 우리가 평소에 알 수 없었던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엔젤포럼이 아니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강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원장 저도 올해부터 엔젤클럽 운영이사를 맡아



엔젤포럼에 앞서 대박 투어 중인 참가자들



여기가 선수단 라카룸



엔젤포럼을 이끌어갈 운영위원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내공이 대단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협의하고 잘 준비한다면 기존 유사한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강사를 섭외하고 사전 준비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엔젤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원장 엔젤포럼은 이름처럼 ‘엔젤’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엔젤포럼을 통해 엔젤정신을 되새기는 한편 다양하고 색다른 이야기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따라서 엔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과거 엔젤 초창기에는 엔젤 3대 의무가 강조됐었지요. 후원금 납부와 경기관람, 그리고 릴레이(추천)였습니다. 한 사람이 양손에 한 명씩 두 명을 추천하자고 했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로 오늘의 엔젤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엔젤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젤 여러분들

초기 엔젤 회원 확보 매처럼, 포럼 참가자 릴레이 캠페인 전개



엔젤포럼의 성공을 위하여 한마음이 된 강병규 원장과 노성식 부원장

이 한 손에 한 분씩만 모시고 오셔도 상황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새로운 10년을 맞는 엔젤클럽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원장 엔젤포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러 참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사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강사로 봉사할 좋은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으로 함께해 주실 분도 언제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젤클럽이 ‘축구를 통한 지역사랑’이라는 획기적인 지역공헌활동으로 새로운 스포츠후원문화를 만들어 간 것처럼 엔젤포럼 역시 이 시대에 새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엔젤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2024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엔젤포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세계 최초 모태엔젤 이 주안

엔젤 사랑 무럭무럭 자라

대구FC 응원가
흥얼흥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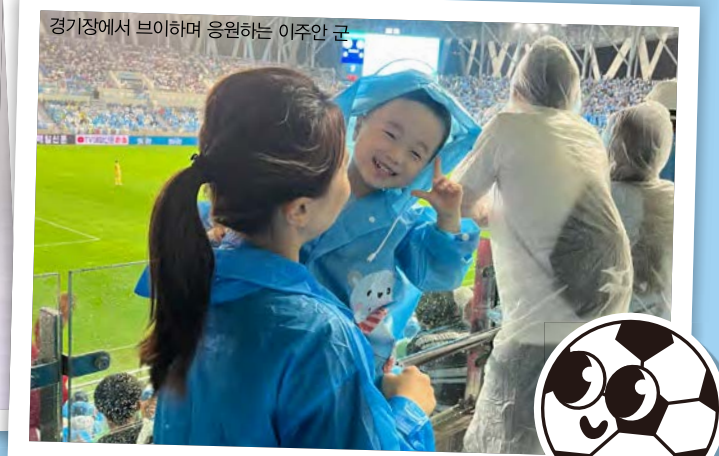


엔젤의
마스코트로
사랑 독차지

국내, 아니 세계 최초로 모태 축구팬이 된 이주안 군이 엔젤, 엔시오 부모님과 많은 엔젤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주안이는 바로 엔젤클럽의 마스코트자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박의 함성 소리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는 응원가를 흥얼거리며 축구를 즐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주안이를 보는 엔젤마다 미소 가득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꿈꿉니다. 엔젤클럽 매거진에서는 '엔젤 창립 10주년'을 맞아 주안이가 앞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모태엔젤 주안이의 성장일기'라는 타이틀로 꾸준히 실을 계획입니다. 엔젤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주안이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편집자 주)



대구FC 로고가 새겨진 공을 끌어안은 이주안 군



경기장에서 브이하며 응원하는 이주안 군



2021년 3월, 첫 숨을 내쉬기도 전에 엔젤클럽에 가입해 모태엔젤이 된 주안이. 어느새 4살이 된 이 축구천사는 대구FC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어린 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구FC의 홈구장인 대박과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주안이는 조용한 오후, 경기장 주변을 자주 산책하며 경기 날의 분위기를 상상하지요. 홈경기가 있는 날에는 거실 창을 통해 들려오는 장내 아나운서의 테스트 방송에 귀를 기울이며 “경기가 곧 시작할 것 같다.”며 경기장에 가자고 보채곤 합니다. 빨리 가서 엔젤 할아버지, 아저씨들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아마도 엔젤클럽 회원분들의 애정 어린 환대를 즐기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 요즘 김종두 엔젤클럽 사무총장이 카메라를 들면 거기에 맞춰 미소 짓고 귀여운 포즈를 취하곤 합니다. 주안이가 좋아하는 노래는 대구FC의 응원가인 ‘그 겨울! 경기장에서는 물론 차에 탈 때마다 반복해서 듣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 겨울’의 멜로디에 맞춰 가사를 바꿔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물을 접하면 그 사물의 이름을 가사에 대입해서 흥얼거리며 본인만의 놀이에 빠져들지요. 최근에는 코스모스 꽃을 알게 된 후 ‘국제선 타고서’라는 가사를 ‘코스모스 타고서’로 바꿔 부르며 대구FC에 대한 애정을 나름의 창의력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어린이집에 가셔도 본인이 표지 모델로 등장한 엔젤클럽 매거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고 대구FC의 응원가를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입가에 미소가 가만히 번집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를 엔젤클럽에 가입시킬 때 부모로서 바랬던 모습 그대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엔젤클럽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 속에 오늘도 주안이는 대구FC의 팬이자 엔젤의 일원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안이의 일기는 계속됩니다.

글_이원재 엔젤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엔젤 10년을 노래하다! 대박에 펼쳐진 문화 예술 스포츠의 하모니

명예 엔젤 이윤경 소프라노의
천사의 목소리가 대박에 울려 퍼졌다.

정호승 시인 엔젤 앰배서더 위촉,
명예 엔젤 이윤경 소프라노의 축하 등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2024년 11월 3일 대구iM뱅크파크(이하 대박)에서는 1만 1천 명이 넘는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명예 엔젤 이윤경 소프라노의 맑은 목소리가 퍼져 나갔다.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대구FC VS 제주UTD) 기념공연이었다. 대구 출신의 국내 정상급 성악가 이윤경 소프라노는 “예전 유학을 준비하던 시절 대구FC가 창단됐고, 시민주주로 참여했다. 그 이후 유학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대구FC가 힘이 됐다. 오늘 명예 엔젤로서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너무 기쁘다.”라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청아한 목소리로 ‘You raise me up’을 불렀다.

이윤경 명예 엔젤은 스카이블루의 드레스를 입고, 풍부한 음색과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관중석의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손현구 엔젤은 “그동안 대구FC 경기를 보면서 축구경기에 감동한 적은 많았지만 하프타임 공연에 감동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행사에 품격에 맞는 감동을 선물해준 이윤경 소프라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손현구 엔젤은 직접 이윤경 소프라노를 찾아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더없이 좋은 가을날 푸른 피치 위에서 열린 최고의 공연이자, 대구FC에 대한 최고의 공연이었다. 이윤경 소프라노는 공연을 마치면서도 “우리 선수들 다치지 말고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관중들의 박수와 함성을 이끌어 냈다.

정호승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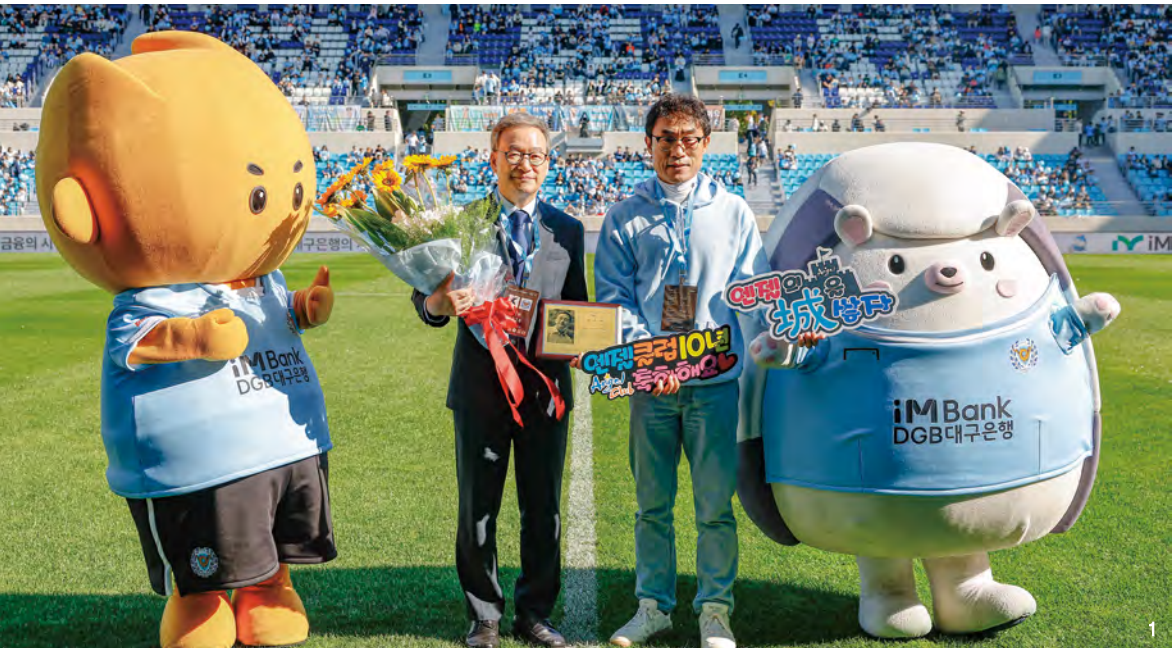
‘나의 시적 모태는 대구’

이에 앞서 식전 행사로는 국내 대표적인 서정 시인 정호승 시인의 엔젤클럽 앰배서더 위촉식이 열렸다. 지난 8월 엔젤클럽에 가입한 정호승 시인은 이번에는 대구FC와 엔젤클럽의 앰배서더로 위촉돼 앞으로 대구FC와 엔젤클럽을 널리 알리게 됐다. 고향은 경남 하동이지만 대구에서 초중고를 다닌 정호승 시인은 언제나 ‘자신의 시적 사유의 모태를 대구’라고 말하곤 했다. 그만큼 대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정호승 시인은 ‘시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을을 맞아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직접 대박을 방문, 위촉식에 참가했다.

위촉식 이후 많은 엔젤과 팬들은 정호승 시인의 엔젤 앰배서더 위촉을 축하하는 한편, 기념촬영을 하며 축구천사가 된 것을 함께 기뻐했다. ‘시 쓰는 축구천사’ 송원배 엔젤은 “평소 힘이 들 때 정호승 시인의 시를 자주 읽는다. 이렇게 직접 뵙는 것 만으로도 좋은데, 같은 엔젤이라고 하

시니 너무 행복하다. 엔젤클럽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그 숲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다. 앞으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호승 시인은 지난 6월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이 엔젤 앰배서더를 요청하자, 앰배서더는 물론 엔젤클럽 회원으로 바로 가입하고 후원금도 보내오는 등 축구사랑과 대구사랑에 대한 진심을 보였다. 이호경 회장은 “지역에서 열린 특강에서 정호승 시인을 뵈 뒤, 앰배서더로 모시기로 마음을 먹고 찾아뵈었다. 엔젤클럽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시고는 칭찬과 격려를 하시더니 앰배서더에 앞서 엔젤 회원부터 하시겠다고 해 감동했다.”며 그때를 떠올렸다. 이 회장은 “정호승 시인의 이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기리고 싶어 이번에 모시게 됐는데 다른 일 제쳐두시고 직접 내려와 너무 감사드린다. 앞으로 엔젤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물론 엔젤클럽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덧붙였다.



하늘색 풍선, 하늘색 꿈

이제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가 열리면, 대박은 하늘색 풍선으로 가득 찬다. “선수단 입장!” 명에 엔젤 박정일 장내 아나운서의 외침과 함께 대박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선수단 입장과 함께 1만 개의 하늘색 풍선을 흔들었다. 순간 대박은 하늘빛 경기장으로 변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박을 푸르게’ 하늘색 풍선 이벤트는 이제 엔젤클럽의 상징이 되었다. 관중들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더 힘차게 풍선을 흔들었다. 최근 바쁜 일로 경기장을 자주 찾지 못했던 신인철 엔젤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관중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 같다. 정말 경기장이 하늘색으로 변한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첫해부터 시작해 큰 반응을 이끌어 냈던 ‘선수 실착 경품 추첨’은 올해도 반응이 뜨거웠다. 무엇보다 대구FC 선수들이 늘

- 1 정호승 시인, 엔젤 앰배서더로 위촉되다.
- 2 2024년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에 수많은 관중이 운집했다.
- 3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이벤트가 펼쳐진 광장
- 4 좋은 영상을 위해 촬영팀과 협의하고 있는 손현구 엔젤

잊지 않고 많은 경품을 내어 준다. 올해에도 세징야, 황재원, 홍철, 고재현, 정치인, 박세진 선수가 친필 사인 축구화를 내놔고, 오승훈, 최영은 선수도 친필 사인 장갑을 각 1켤레씩 기증했다. 친필 사인이 들어간 프리매치 셔츠 4벌도 빠질 수 없다.

올해 후반기에 투입되어 대구FC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정치인 선수는 “대구로 다시 돌아와 엔젤들과 팬들을 위해 축구화를 기증하니 한편으로는 참 기분이 좋다. 늘 사랑해 주시는 엔젤과 팬을 위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경품 추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돼 많은 팬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최근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손현구 엔젤이 대구로 올라와 직접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손에 손잡고

올해도 치열했던 것은 엔젤키즈 플레이 에스코트. 추첨을 통해 선발된 21명의 천사들이 선수들의 손을 잡고 경기장에 입장했다. ‘선수단 입장’의 신호와 함께 엔젤키즈들은 피치로 향했고, 관중석에서는 1만 개의 하늘색 풍선이 장관을 연출했다. 선수들과 함께 피치를 밟는 아이들은 상기돼 있었고, 영원히 오늘을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위서훈 엔젤의 아버지 위상규 씨는 “웅장한 대박의 열기 속에 서훈이가 조금 위축될까 염려했는데, 기우였던 것 같았다. 서훈이가 엄청나게



즐거워했다. 이런 좋은 경험을 선물해 준 대구 FC 구단과 엔젤클럽에 감사드린다.”고 행복해했다.

이어지는 시축 이벤트에도 많은 엔젤들이 참석했다. 올해 시축에는 김영만, 노기원, 박상홍, 박윤경, 박효정, 이명수, 조운호, 조종수, 이기환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가나다순)과 올해로 10년 후원하게 된 강병규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를 총 기획한 조승우 영스카이본부 상임부회장, 시니어모텔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패션 인플루언서 김재우 엔젤이 함께했다.

10년 엔젤 강병규 엔젤은 “10년 엔젤을 한 보람을 느낀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관중들의 함성소리와 경기 시작 전의 긴장감을 모두 느꼈다. 엔젤이어서 참 행복한 순간이었다.”라고 시축 소감을 밝혔다.

5 다이아몬드 엔젤이 경기 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6 시축하는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과 엔젤 임원들

7 엔젤키즈 플레이어 에스코트에 참여한 엔젤의 자녀들



봉사하는 엔젤, 천사의 마음

이번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에서도 많은 분들이 봉사에 나섰다. 가게가 바빠 자주 대박을 못 찾았다는 김호철 엔젤(반월당 부자식당 대표)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랐다. 요즘 대구FC를 사랑해 주는 시민들이 많아 분위기가 참 좋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 해주시고, 경기장 관람문화도 점점 성숙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초등학생엔젤 신솔 군(수성초 5년)은 “엔젤클럽에 가입한 후에 대구FC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다. 엔젤클럽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엔젤클럽과 대구FC가 좀 더 가까워지고, 시민들이 축구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평소에도 봉사를 좋아한다는 김규식 엔시오는 “객지에 있다보니 고향팀 대구FC에 대한 생각이 더 애뜻해졌다. 늘 ‘대구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FC엔젤클럽 브랜드 데이에 봉사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대구FC의 든든한 버팀목 엔젤클럽을 언제나 사랑하며 지지한다.”며 대구FC엔젤클럽 파이팅을 외쳤다.

손현구 엔젤 역시 영상 촬영을 지원 나온 (주)빌사부의 양대웅 PD와 황준길 사원을 안내하고 인터뷰까지 진행하면서 이번 봉사활동에도 대 활약했다. 이번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에 눈에 띄는 것은 카메라와 영상장비. 송원배 엔젤이 대표로 있는 (주)빌사부 촬영팀이 직접 나와 이날 식전 이벤트는 물론 경기장에서 열리는 각종 이벤트를 카메라에 담았다. 황준길 사원은 “오늘 대구FC가 승리하고 엔젤클럽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좋은 촬영하기 위해 왔다. 대박은 처음인데 엔젤클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원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8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에 봉사활동을 펼친 엔젤, 엔시오, 시민 여러분

9 봉사활동을 펼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김호철 엔젤

10 (주)빌사부의 영상촬영팀 양대웅 PD(왼), 황준길 사원(오)

이날 현장을 진두지휘한 조태근 영스카이본부 상임이사는 “이번 대구FC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를 총괄하면서 대구FC와 엔젤클럽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보람을 느꼈다. 이번 행사가 지난해보다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엔젤님들과 엔시오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 올해로 3회째 맞는 대구FC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대박에서 노래하는 게 꿈이었어요!

명예 엔젤 이윤경 소프라노
대박에 서다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축하공연
‘You raise me up’ 천상의 목소리로
관중에게 감동 선사

대구M뱅크파크에서 공연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운이 좋아 세계의 많은 공연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사
람들에게 늘 말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대구FC 경기가 열
리는 대박에서 노래하고 싶다고... 오늘 그 꿈이 이뤄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릴 적부터 무대에 섰었고, 해외공연까지 같이 다니셨던 터
라, 보통 부모님은 제 공연에 크게 기대가 없으세요. 오히려 쓴
소리를 하시는 편이죠. “소리가 좀 흔들리더라, 그 드레스 안맞
더라, 가사가 부정확했다...” 그런 직원들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해주십니다. 어느 공연장을 가든 저희 부모님인줄 알기에 크게
박수도 안 치시구요. 이번 공연은 요청받은 날부터, “네 꿈이
이루어졌네!”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연세가 있
으셔서 힘드시면 중간에 가시라고 했는데 경기도 집중해서 재
미있게 보셨대요. 어떤 공연보다도 더 즐거워하시며 기립박수
를 쳐 주셔서 간만에 효도한 느낌입니다.



이윤경 소프라노와 부모님



특별히 대구FC와 대박에 맞춘 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주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푸른색 계열의 드레스가 몇 개 있는데, 딱 그 스카이블루가
없더라고요. 정말 꼭 그 색깔을 입고 싶었기에 제가 가는 청
담동 드레스숍에 의뢰해서 이틀 전에 택배로 드레스를 받았
어요. 빠른 시간에 맞추느라 솜에서도 고생하셨는데, 사연
을 들으시고 흔쾌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구FC 창단 때 주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주주
가 되셨는지?

제 사춘기 시절 여고생들에게 인기 있던 스포츠는 단연 농
구, 배구였는데 저는 이상하게 축구를 좋아해서, 국가대표팀
이 새벽에 하는 원정경기도 실시간으로 응원하곤 했었어요.
유학 떠나기 직전 대학원을 다니며 대구시립합창단에 근무
할 당시 대구FC가 창단되어서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응원하
는 마음에 ‘이건 당연히 해야겠다’ 생각해서 주식을 샀던 기
억이 나네요. 2003년이니 20대 중반이었죠.

엔젤과 대구FC, 축구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성악가들은 유럽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유럽의 빅리그를 가까이서 접하는데요. 대구FC 팬들처럼 구
단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엔 엔젤클
럽을 알게 되고 깜짝 놀랐어요. 스포츠 경기는 꼭 저희 공연
과 같아서 잘 될 때도 있고 이유 없이 꺾이고 어려울 때도 있
는데,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팬은 성악
가에게도 선수에게도 이루 말 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관객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선수들도 그 고마움 잘 알고 있
으리라 생각합니다. 타지에서 출신 도시를 이야기할 때 ‘국채
보상운동의 도시 대구’라고 자랑하는데요. 요즘은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구단 대구FC 이야기까지 더 없어서 합니다. 함께
자부심 가지고 선수들 부디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 할 수 있
도록, 대구를 거쳐 가는 모든 선수들이 더 성장하고 건강해
지는 구단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엔젤클럽 가치 공유한 뜻깊은 행사 자원봉사에 참여한 엔젤, 엔시오분들께 감사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기획한
조승우 영스카이본부 상임부회장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조승우 상임부회장

대구FC엔젤클럽 상임부회장이자 총책임자로서
이번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이번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는 대구FC의 재정자립명문구단
을 위해 후원하는 엔젤클럽이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엔젤클럽과 팬 여려분
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FC를 응원하고, 우리 클럽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
다. 총책임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내년에도 더 좋은
내용과 소통으로 대구FC와 엔젤클럽의 지속적 발전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행사를 준비하고 마친 소감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이
번 행사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분들 덕

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무척 자랑스
럽습니다. 모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통해 얻은 점이 있다면?

팬들과 지역사회, 그리고 엔젤클럽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응원
과 후원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구FC
는 단순한 축구 클럽이 아닌, 이 지역의 상징이며, 엔젤클럽
은 그 성장과 발전을 든든히 지원하는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엔젤클럽을 통해
대구FC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날 시축을 했다. 소감이 있다면?

지난 3년 동안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를 열심히 했더니 이번
에는 시축의 기회가 주어져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그 순간
많은 팬들과 엔젤들이 보내주는 환호를 들으며, 대구FC와 엔
젤클럽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축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구FC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과
하나 되는 느낌이었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
람을 느낍니다.

※ 이 기사는 2024년 12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시축자로 나선 조승우 상임부회장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내가 만난 정호승 시인

정호승 시인,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대박 방문
엔젤동산 둘러보며, 대구 축구 열기와 엔젤들의 대구사랑에 감동
범어천은 시적 감수성의 근원, 대박은 대구 축구사랑의 근원

글_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엔젤동산을 둘러보는 정호승 시인

운주사와불님을 뵈고 / 돌아오는 길에 /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
먼 데서 바람 불어와 / 풍경 소리 들리면 /
보고 싶은 내 마음이 / 찾아간 줄 알아라
정호승 시인의 <풍경 달다>

평소에 참 좋아하는 시^詩입니다. 가끔 고요한 절집을 찾으면 풍경 소리를 듣고는 하는데 그 때마다 누군가가 참 그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를 지은 정호승 시인은 과연 어떤 분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시, 산문, 그리고 사진으로는 비였지만 ‘직접 만나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위치한 정호승문학관에도 방문해 시인의 흔적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지역의 한 포럼의 강사로 초빙된

시인을 만났습니다. 시인의 글처럼 차분하면서도 감동적인 강의에 자연스레 스며들었지요. 특히, 강연 중에 어린 시절을 소환하시면서 시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배경에는 ‘어릴 적 대구’ ‘소년 정호승’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이 경남 하동인 정호승 시인은 삼덕국민학교(현 삼덕초), 계성중학교, 대륜고등학교 등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내셨지요.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 정호승 시인이 뛰어다니며 놀았던 신천과 범어천 등이 수많은 명시의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 역시 ‘나의 시적 고향은 범어천’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이지요. 시인은 당시만 하더라도 깨끗한 범어천에서 여름이면 먹을 잡고, 물고기를 잡았으며, 겨울이면 썰매를 탔고, 해변기에는 얼음뿔목을 타며 놀았을 테지요. 그렇게 범어천과 이어진 수성들을 오가며 시인의 꿈을 키웠을 것입니다.

‘내 죽어 범어천 냇가의 진흙이 되면 / 그 흙으로 황소 한 마리만 들어 / 가끔 그 소를 타고 우리집에 자주렴 … (중략) … 내 죽어 범어천 개울가의 진흙이 되면 / 얼음장 밑으로 졸졸졸 / 봄이 오는 소리를 내고 있으면’
〈벚에게〉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호승 시인의 시적 고향이 바로 대구라는 사실, 그리고 그만큼 대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에 문득 엔젤클럽이 떠올랐습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근간도 바로 대구사랑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인의 대구사랑과 엔젤클럽의 대구사랑이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의가 끝난 뒤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도 함께 했었지요.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미리 약속을 잡아서 매월 직접 강연을 하는 정호승문학관을 찾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맞아 주시는 시인의 모습에 친근감과 존경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분이어서 우리 엔젤클럽의 상징성과 대외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앰배서더로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엔젤클럽의 탄생 배경과 10년 동안 걸어

왔던 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도 설명드렸지요. 묵묵히 듣고 있던 시인은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신 후 “앰배서더를 하기 전에 엔젤클럽 회원가입부터 하겠다.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구사랑에 동참해서 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튿날 사무국을 통해서 메일로 엔젤클럽 가입신청서를 보내 드렸더니 바로 작성해주셨고, 후원금도 보내 주셨습니다. 앰배서더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의 자랑인 정호승 시인을 대구FC엔젤클럽의 앰배서더로 모시게 된 것은 정말 큰 기쁨이며, 자랑스러워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달이 흘렀습니다.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를 앞두고 꼭 정호승 시인을 모시고 싶었고, 엔젤은 물론, 축구팬과 대구시민 앞에서 엔젤클럽과 대구FC의 앰배서더로 위촉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서울에 거주하는 아들이자 축구천사인 이동진 엔젤과 함께 정호승 시인은 11월 3일 대구로 오셨습니다. 범어천이 시인의 시적 감수성의 근원이라면 대구iM뱅크파크는 대구 축구팬들의 열정의 근원이라는 생각에 먼저 대박 인근을 안내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학창 시절 봤던 대구시민운동장을 떠올리시는 대구 도심에 이렇게 멋진 경기장이 있다는 것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마련된 엔젤동산에서는 엔젤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가슴 뭉클해 하셨습니다. 대박 안으로 들어서서는 더 놀라셨습니다. 단지 축구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서포터스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는 걸 보고, 축구의 힘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축구장에 많은 것을 보고 희망을 보셨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오는 팬들을 보면서 축구를 통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경기 전 앰배서더 위촉식을 가진 뒤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에는 엔젤룸을 찾아 엔젤들과 담소를 나누고 기념촬영까지 하셨지요. 정호승 시인은 “이번에 대구에 와서 축구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됐다. 엔젤회원이 된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시를 쓰시겠다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범어천처럼 대박의 모습이 어떤 시적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내년이면 엔젤클럽 창립 10주년입니다. 아마도 그에 걸맞는 시 한편 헌정되는 것도 뜻깊을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그런 꿈을 꾸어 봅니다.



(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정호승문학관'에서 이호경 회장(왼쪽)과 정호승 시인(오른쪽)
(아래) 정호승 시인이 엔젤들과 함께 대구FC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병원음악회로 마음까지 치료하는

낭만닥터

김주성 엔젤
광개토병원 원장

무엇이 낭만인가? 낭만가객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들으며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색소폰 소릴 듣는 것'일까?

화상전문병원인 광개토병원의 김주성 원장(9년 엔젤)은 병원 17층에 무대를 마련하고, 환자들을 위해 트럼펫을 힘껏 불며 병원 소속의 브라스밴드와 앙상블을 이루는 것으로 '낭만'을 정의 내렸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다. 악기를 놓은 지 오래돼 처음에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민망할 만도 했지만, 김 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김 원장은 '저는 웃음 담당'이라며 망가지기를 서슴지 않았다. "공연 전날까지 제대로 연습했는데, 무대에 서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분명 저의 진심과 용기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요." 김 원장의 연주에 환자들과 관객들은 때론 웃음으로, 때론 진심 어린 박수로 화답했다. 클래식 공연이라 엄숙할 만하지만, 김 원장의 용기에 관객도 공연도 즐겁다.

여기에 광개토병원 소속의 GGT브라스밴드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병원은 일순간 즐거운 공연장으로 변신하고, 병원생활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은 행복한 관객이 된다. 무엇보다 평소 딱딱한 이야기만 주고 받던 환자와 의료진이 음악을 통해 유대감을 가지면서 치료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광개토병원음악회'의 모습이다.

광개토병원음악회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한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재능기부자와 환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2회 3회로 이어졌고 어느새 100회를 바라보고 있다. 당초 일요일에 했으나 환자들의 외출이 많아 최근에는 월요일 저녁 7시로 옮겼다.

김 원장과 호흡을 맞추는 밴드는 'GGT브라스밴드'! 한마디로 광개토병원브라스밴드다. 음악회 초기만 하더라도 대구시립교향악단 일부 단원으로 구성된 인어스브라스앙상블을 비롯 많은 음악인들이 재능기부를 했으나, 지금은 GGT브라스밴드가 중심이된다. 이들은 음악전공자로 김 원장이 특별히 홍보팀으로 채용, 밴드를 만들었다.

"음악을 전공하고서도 관련 일자리가 한정돼 있다보니 음악을 포기하는 청년음악인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설 무대가 마땅치 않았고, 관객 모으기도 힘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병원은 늘 관객이 있는 곳 아닙니까? 무대만 있다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친김에 홍보팀 직원으로 채용했지요."

GGT브라스밴드는 박제민(트럼본), 안세미(트럼펫), 차민규(튜바), 심민주(트럼펫), 김동현(호른)으로 구성됐다. 김 원장은 이들의 얼굴을 광개토병원 버스 광고에 2명씩 내건다. 연주자들도 좋아하고 병원 이미지도 개선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제15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에 나가서 우승 없는 3등으로 입상해 김 원장을 흐뭇하게 했다. 김 원장은 내친김에 시향에도 도전하라고 격려한다. 그들이 꿈을 이루는 그 과정 역시 음악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축구 통해 대구사랑 실천하는

축구천사

- 1 환자들의 치유를 위하여 트럼펫 연주를 하고 있는 김주성 원장
- 2 광개토병원의 자랑 GGT브라스밴드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나팔 연주 장면에 꽃혀 악대부 가입

김주성 원장은 청구고등학교 악대부 출신이다. 옛된 얼굴에 공부만 할 것 같은 김 원장이 악대부에 들어간 건 뜻밖이다. 하지만, 아직도 악대부 친구들과 가깝게 지낼 정도로 우정이 깊다. 당시 청구고는 전국 축구를 호령할 때였다. 운동장에 가면 악대부가 응원의 최전선에 선다. 골이 터지면 음악선생님이 돌아서서 지휘봉을 잡고, 악대부는 합성 지를 틈도 없이 교가와 응원가를 연주한다. 함께 응원 온 학생들이 합창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만큼 학교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김 원장은 잠시 지난날을 추억했다.

“어린 시절 명화극장에서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를 봤습니다.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한 손으로 군대용 나팔(bugle)을 잡고 연주하는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악대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친구 따라 가입하게 됐어요. 부글과 비슷한 트럼펫을 불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후로도 ‘아빠밴드(피리부는 사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가족 모임에서 연주를 하자 아이들이 ‘우리 아빠 최고’라며 엄지척을 한다. ‘필’ 받은 김에 김 원장은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어 대구시향 연주자들에게 레슨을 받았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병원에서 음악회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 어느 곳 보다 음악이 필요한 곳이 병원 아닌가. 무엇보다 화상환자들은 트라우마가 많다. 상처가 심한데다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처가 눈에 잘 띄는 경우가 많아, ‘과연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병원생활에 음악이 함께한다면 치료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다. 실제로 음악이 화상치로나 산부인과 등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김 원장은 그 꿈을 잠시 보류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지난해 4월, 마침내 용기를 냈다.

의료진과 환자 유대감 형성
치료에도 도움 될 듯

처음에는 시향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작했다. 환자들을 위해 시작했지만 김 원장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보람이 컸다. 환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등 기대 이상이었다. 음악을 하는 자녀를 둔 한 아버지 환자는 딸의 공연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까웠지만, 병원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남편이 과거 음악 전공자였던 한 환자는 남편의 연주를 듣고 싶다고 했고, 16년간 악기를 놓았던 남편도 흔쾌히 용기를 냈다. 오보에 연주자인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친다’라며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연주해 모두를 감동에 젖게 했다. 환자들 가운데는 팔 다리뿐만 아니



3 광개토병원음악회는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함께하는 우리들의 잔치다.

라 안면 환자도 있어 붕대를 감고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기도 한다. 이들은 음악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이 무대가 뜻깊다.

김 원장은 병원만큼 인문학과 예술이 필요한 곳도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는 가끔 중증 화상환자들이 병원에서 사망할 때는 직접 곁을 지키다. “상처가 너무 심한 환자들의 경우 다른 병원에 가지지 않고 우리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마지막을 지키지요. 제 능력의 부족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는 존 버거의 책 《행운아》에 나오는 문장을 연상케 한다. ‘의사는 죽음과 친숙한 사람이다. 의사를 부를 때 우리는 그가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의 고통을 덜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치료가 불가능할 때는 그가 우리의 죽음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그만큼 병원, 특히 화상병원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다. 김 원장이 이곳을 음악을 통한 치유의 장으로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천생 ‘천사’다. 따라서 광개토병원음악회 역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GGT브라스밴드도 지역 요양원이나 복지단체에 무료 봉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김주성 원장은 “으뜸음에서 출발해 여러 변화를 거쳐 다시 으뜸음으로 돌아오는 음악은 여행과 같다고 한다. 집에서 출발해 수많은 고난을 겪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환자들도 우리 병원에서 치료도 잘 받고 음악으로 마음의 치유도 하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란다. 앞으로 환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밀착형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4 GGT 브라스밴드는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등 외부공연을 통해 사랑을 나눈다.
5 김주성 원장은 오늘도 환자들을 위해 트럼펫을 힘껏 불어본다.



2016년 엔젤 가입,
시민구단 대구FC 발전 위해 9년 동안 후원

실제로 김주성 원장은 진짜 ‘엔젤’이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천사이기도 하지만, 시민구단 대구FC가 명문구단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대구FC엔젤클럽의 초창기 멤버다. 2016년부터 시작, 올해 9년째 후원 중이다. 학창 시절 축구부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그는 시민구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무엇보다 현재 대구FC를 이끌고 있는 박창현 감독은 김 원장의 고교 선배다. 당시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렸던 대통령배축구대회에 원정응원을 갔던 김 원장은 청구고가 결승에서 상대팀을 역전으로 물리치고 우승했을 때, 자신이 우승한 것처럼 기뻐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면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박창현 감독 등 청구고 선수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30년 동안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며 함께 추억에 젖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김 원장은 축구명문 청구고의 부활을 염원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초기 엔젤이면서도 대파에서 티를 안낸다. 조용히 왔다가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감사해 한다. 음악을 통해 환자들을 치유하고, 축구 후원을 통해 시민구단 대구FC를 응원한다는 것이 행복하다. 환자들을 위해 마련한 광개토병원음악회는 100회를 향하고 있고, 시민구단 대구FC를 위한 후원은 내년이면 10년이다.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며 축구에 미치는 그는 천생 ‘엔젤’이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중학교 친구, 축구 유튜버 활동으로 우정 이어가
엔시오 손시, '엔젤은 대구의 또 다른 서사' 창립 10주년 축하

수천만의 눈이
지켜보는 운동장에는
위선이 숨을 구석이 없다
하늘이 내려다 보는
푸른 잔디 위에
너희들의 기쁨과 슬픔을 묻어라

최영미의 '정의는 축구장에만 있다' 중에서

대구FC 중계방송이나 대박 전광판을 보면 유난히 화면에 잡히는 얼굴들이 있다. 외계인 안경을 쓰고 온 몸으로 '낭만의 시대'를 외치며 축구에 열광하는 두 청춘. 바로 손시와 김시다. 애초에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가대표 경기만 관람하던 집들이 축구팬인 이들이 세간에 떠도는 '대구FC'의 소문을 따라 대박에 온 후로 단번에 광팬이 돼 버렸다. 엔젤클럽에도 관심이 많아 손시는 엔시오로 활동 중이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취미생활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자는 뜻에서 유튜브를 시작해 진심을 다했고, 그 진심은 통했다. 축구장에서는 물론이고 시내를 지나치다 가도 이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심심찮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현생의 일로 인해 '손시와 김시'의 완전체가 쉽지 않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이들은 하나가 됐다. 마침 이날 열린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경품 추첨 이벤트에도 참가했다. 모처럼 완전체가 된 손시와 김시를 만나, 그들의 축구 청춘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경품 추첨에 직접 참가했다.

손시 대구FC 선수들의 실착 용품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엔젤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다만, 추첨을 하면서 왜 난 이 이벤트에 신청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첨함 속에 표가 상당히 많던데 그만큼 팬 여러분의 관심이 많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김시 원래는 국가대표 경기를 보곤 했는데 지난해 3월 대구FC와 전북과의 홈경기를 처음 직관하게 됐습니다. 서포터즈를 비롯해서 관중들이 엄청 많아 놀랐고, 경기장 분위기를 보고 문화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축구를 보니까 너무 생동감 있었고, 현장감이 남달랐습니다. 그때부터 대구FC에 완전 빠져들었습니다.

손시 대구FC를 쫓아 다니다 보니 다른 분이 만든 영상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겸 우리의 삶을 한 번 기록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지난 5월 포항전부터었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습니다. 특히, 축구와 전혀 상관 없는 곳에서 마주칠 때도 ‘손시, 김시’ 아니냐고 하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김시 처음에는 ‘진기명기’라고 할까도 했어요. 그런데 입에 안 붙더라고요. 우리는 평소에도 서로를 부를 때 ‘아이 김시’라고 하면, ‘왜 그러나 손시’라고 했어요. 입에도 착착 붙기도 하고, 정체성도 들어가는 것 같고 해서 ‘손시와 김시’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어떤 존재인가?

손시 같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3 때는 같은 반이기도 했고요. 본격적으로 친해진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강통차기, 게임 등을 하며 늘 같이 다녔고 한때는 저의 주도로 여성 축구 대결을 했던 적도 있어요.

엔젤클럽 브랜드 데이 경품 추첨에 참여한 손시와 김시



김시 늘 좋을 수는 없지만, 다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색하다 싶으면 ‘아까 왜 그렇게 했냐?’는 식으로 대놓고 말해서 풀어 버리는 편입니다. 우리에게서 공통의 주제 ‘대구FC’가 있으니, 축구이야기를 하면 늘 한마음이 된답니다. 물론, 이기면 둘 다 기분이 좋고, 결과가 안 좋으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 없어져요.

손시와 김시에게 ‘대구FC’란?

김시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대구FC를 좋아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도 하시니까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준 것 같습니다.

대구FC는 시민구단이다. 앞으로 어떤 팀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손시 ‘대구라는 자부심’라는 말을 들으면 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또 ‘시민이 주인인 구단’이라는 말은 참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축구시민주의’를 외치는 엔젤클럽도 타 구단에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함 같아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진짜 시민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 최초 시민구단이라는 말에 이어 ‘시민구단 최초 우승’이라는 타이틀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김시 모든 경기가 기억에 남지만 특히 2023년 7월 제주원정 경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장성원 선수의 데뷔골은 극장골이 됐고, 원정 온 대구팬들 모두가 서로 제주에서 대구를 외쳤지요. 그리고 승리에 취해 경기장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영화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는 현장팀에서 노래하고 북을 치고 있어서, 우리도 ‘우산 쓸 필요가 있겠냐고 생각하고 바로 뛰어들어 쏟아지는 빗속에서 대구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외계인 안경을 쓰게 된 이유는?

손시 시작은 인생네컷 사진관에서었어요. 써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고 ‘국대 경기를 응원가보자!’ 해서 갔어요. 더한 분장들이 많으니까 눈에 떨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대구 경기장에서도 그냥 스치고 지나가듯 보실 줄 알았는데 다들 신기하고 관심 있



(위) 대박에 가면 만날수 있는 ‘손시와 김시’
(아래) 중계카메라에 잡힌 ‘손시와 김시’

‘대구라는 자부심’라는 말을 들으면
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시민이 주인인 구단’이라는 말은
참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축구시민주의’를 외치는 엔젤클럽도
타 구단에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함 같아요.



원정 경기에서 만난 손시와 김시

게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낮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얼굴을 조금이라도 가리니 응원이 더 잘되더군요.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어요.(웃음)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김시 대구FC 선수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좋아합니다. 다만, 그때 그때마다 마음이 더 가는 선수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요즘 에드가 선수가 마음에 갑니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뛰고, 필요할 때 해결사 역할을 해주니까요.

손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FC 선수라면 모두 다 애춧합니다. 그래서 마킹도 할 때마다 다르게 하지요. 최근에는 세징야를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이미 레전드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도 열심히 뛰고, 헌신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져요. 특히 대전 경기에서 PK를 넣지 못하고 땅을 치고 울었을 때,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김시 주목하는 김영준 선수예요. 출전 기회는 많지 않지만, 경기장에 나서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요. 압박해서 공을 뺏고,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새해에는 그라운드에서 좀 더 많이 봤으면 합니다.

손시 저는 이진용 선수가 빨리 돌아 왔으면 좋겠습다. 어릴 때부터 대구 유소년 선수로 성장해서 인지 대구에 대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올해 무엇보다 이진용 선수의 공백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해 국가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엔시오에 가입한 배경은?

손시 처음에는 엔젤클럽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구FC 검색할 때 마다 엔젤클럽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더라고요. 돈 많은 분들이 하는 거라고 넘겼는데, 자세히 검색하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있고 그게 바로 엔시오였습니다.

커피 몇 잔 줄이면 대구FC를 후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어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올해 10년 엔젤이 탄생했고 내년이면 엔젤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손시 먼저 엔젤클럽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10년이란 시간 동안 대구FC를 후원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10주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20주년, 30주년을 넘어 100주년까지 이어져, 엔젤들의 자녀분들도 대구FC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손시 김시 일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호응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삶도 있고 일도 해야 해서 매번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힘이 닿는 한 언제나 대구FC와 함께하고 그 모습을 영상에 담으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 지금처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구로 하나된 즐거운 추억

다이아몬드 엔젤 기업 참여, 축구를 통한 친선 다져
우승은 세신버팔로, 동원약품은 50여 명의 임직원 참여, 대회 분위기 후끈!
마음껏 네 꿈을 펼쳐라, 축구 꿈나무들의 한마당 잔치

- 1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 다이아몬드 친선축구 및 유소년축구페스티벌을 알차게 준비한 엔젤FC의 축구천사들
- 2 다이아몬드 엔젤 기업의 축구팀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선을 도모했다.
- 3 결승전에 맞붙은 세신버팔로와 SL그룹축구팀
- 4 동원약품축구팀과 엔젤FC가 경기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남기고 있다.



2024년 6월 1일 대구강변축구장에서 2024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 친선축구대회 & 유소년축구페스티벌이 열렸다. 올해 대부분의 행사가 그렇듯 이날도 날씨가 도왔다. 초여름의 화창한 날씨 속에 즐거운 축구한마당 잔치가 열렸다. 이번 대회 역시 엔젤클럽 축구대표팀인 엔젤FC(단장 안상영, 감독 천자우) 주관 하에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유소년축구페스티벌과 함께 매년 대구FC에 1천만 원 후원하는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 기업 소속의 축구팀들도 참가해 더 풍성하게 열렸다.



축구꿈나무들, 푸른 잔디 위에서 맘껏 달리다

올해 참가한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팀은 세신버팔로(최영수 크레텍 회장/최상욱 단장), SL축구단(이충곤 S그룹 회장/우동형 감독), 동원약품 축구단(현수환 동원약품그룹 회장/이주원 감독) 팀으로 앞으로 더 많은 팀들의 참가가 예상된다. 유소년축구페스티벌에서는 나인풋볼클럽(오태훈 감독), 바모스FC(김귀현 감독), FC백천유소년(배근효 감독), 수성리틀축구단(송진근 감독), 윈드사커(박건희 감독) 팀 등 5개팀(가나다순)이 출전했다. 지난해와 달리 천연 잔디 구장에서 열린 터라 유소년 선수들은 푸른 잔디 위에서 신나게 뛰어 다녔고, 학부모들



도 함께 즐거운 주말을 축구와 보냈다. 이호경 회장은 “화창한 유월을 맞아 이번 대회에 참석해 주신 선수와 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보니 너무 반갑다. 운동장에서 마음껏 경기를 펼치는 한편 아무쪼록 부상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 대회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엔젤FC 안상영 단장, 천자우 감독, 그리고 엔젤FC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인사했다. 이번 대회를 알차게 준비한 안상영 엔젤FC 단장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다이아몬드 엔젤 기업 3개 축구팀과 유소년 5개 팀을 환영한다. 축구도 마음껏 즐기시고 엔젤클럽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엔젤클럽이 더 활성화 되고 대구FC도 좀 더 명문 구단이 되며, 우리 대구도 좀 더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창림 심판위원장은 “오늘 경기하기 너무 좋은 날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 공정한 판정을 통해 정정당당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유소년팀과 다이아몬드 엔젤 기업팀은 각각 별도의 천연 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쳤다. 유소년 경기는 순위보다는 축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어린 선수들은 유월의 푸른 운동장에서 뛰고, 공을 차며 미래의 축구선수가 되는 꿈을 꾸었다.

다이아몬드 엔젤 친선 경기 우승은 세신버팔로, 분위기상은 동원약품

이번에 초청된 다이아몬드 엔젤 기업팀들도 공정한 경기로 서로 우의를 다졌다. 우승은 결승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SL축구단을 꺾은 세신버팔로가 차지했다. 양 팀은 평소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결승전 다운 명승부를 펼쳤다. 시상식은 안상영 엔젤FC 단장이 진행했다. 세신버팔로는 최상욱 단장과 함께 우승 기념품을 들어 올리며 환호했다. 아쉽게 우승을 놓친 SL축구단은 내년 대회를 기약하게 됐다. 2위 시상식은 이날 많은 임직원과 함께 참석한 현준호 동원약품 대표가 수고했다. 3위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한 엔젤FC가 차지했고 백무연 상임부회장이 시상했다. 이번 대회 4위를 차지한 동원약품 축구팀은 분위기, 참여도를 고려할 때 종합 우승감이었다. 동원약품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팀이 구성돼 아직 손발이 맞지 않았지만, ‘친선’이라는 대회 성격을 가장 잘 실천한 팀이었다. 선수들은 물론 50여 명의 임직원이 경기장을 찾아 함께 합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등 남다른 결속력을 보였다. 이날 시상식을 진행한 김종두 엔젤클럽 사무총장은 “오늘 동원약품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다. 오늘의 응원상 겸, 단합상 겸, 분위기상 겸, 그리고 최다 참가상 등 경기 외 모든 분야에서 최고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직접 대회에 참여 끝날 때까지 응원했던 현준호 동원약품 대표는 “좋은 날씨에 임직원과 함께 참석해서 너무 기



분이 좋았다.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대회 끝까지 남아 행사를 챙겼던 백무연 상임부회장은 “오늘 날씨도 좋았고, 경기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동원약품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앞으로 이 대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더 많은 다이아몬드 엔젤 기업팀들이 참가해 대회가 더 풍성해 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1 2 3 4 5**
유소년축구페스티벌에서는 나인풋볼클럽(오태훈 감독), 바모스FC(김귀현 감독), FC백천유소년(배근효 감독), 수성리틀축구단(송진근 감독), 윈드사커(박건희 감독) 팀 등 5개팀(가나다순)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 아쉽게 우승을 놓친 SL축구팀
이날 직접 참여한 현준호 동원약품 대표가 시상하고 있다.
7 분위기만큼은 최고 동원약품 축구팀
8 선수 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함께 참석,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핸즈커피 이야기’ 펴낸
진경도 엔젤
(핸즈커피 대표)

신이 내린 선물 ‘커피’

사람의 손으로 전하고 책으로 기록하다



1호점 작은 매장에서부터 160호점까지
핸즈커피 대표 진경도 엔젤의 커피 철학과
경영 노하우 담아

초겨울 햇살 좋은 날 대구 북구에 있는 핸드즈커피 본사를 찾았다. 엔젤클럽에 가입한 커피천사 진경도 핸드즈커피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다. 들어가는 입구에 ‘신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었다. 하나는 받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주기 위함이다’라는 문구를 봤다. ‘핸즈커피’의 철학일 것이라 생각하니 ‘그 사람’이 더 궁금해졌다. ‘신이 내린 선물’을 커피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사업이라 어떻게 보면 ‘소명’과도 같은 일일 것이다. ‘진경도’라는 이름 뒤에 ‘엔젤’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린다.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작은 커피점에서 시작 현재 16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린 사업가이자, 회계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앙처럼 커피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노하우를 한 권의 책 《핸즈커피 이야기》(출판 : 씽크스마트)으로 펴낸 진경도 엔젤을 만나봤다.

**핸즈커피의 브랜드가 참 와 닿는다.
어떻게 이름을 지었으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요?**

핸즈커피에서 ‘핸즈’는 신의 손을 의미합니다. 커피의 역사를 보면 이슬람의 음료인 커피가 전 유럽에서 사랑을 받자 ‘악마의 음료’라며 금기시하던 종교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는 신이 내린 축복’이라고 선포하면서 커피에 세례를 주었는데 저는 그 글을 읽고 제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 커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피를 선물로 주시는 그 손’을 생각하며 핸드커피란 이름을 짓게 되었죠. 다분히 신앙적인 요소가 담긴 이름입니다.

18평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 160호 매장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커피점을 하다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창업 전 저는 ‘스페셜티 핸드드립 커피’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커피 하는 사람은 모두 스

페셜티 커피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지만 당시에는 스페셜티란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슈는 많았죠. 현대판 노예란 이야기가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페셜티 시장이 커져야 커피 농장의 농부들이 커피 재배와 수확뿐 아니라 다양한 가공과 그레이딩 과정에 참여하여 수익이 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 맛있는 스페셜티 커피를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티 핸드드립을 전문으로 하는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 대량소비시장으로 가자’는 목표를 세웠죠.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가 핸드커피이니 핸드커피 1호점은 당연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계획하에 만들어진 모델숍이었습니다. 물론 1호점을 오픈하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함께 일하다 보니 ‘이 친구들과 오래 같이 일하려면 결국 장사가 아니라 기업으로 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답은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이었습니다.



핸즈커피 체인 본부

핸즈커피 매장은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철학이 있는지?

핸즈커피 매장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형 브랜드와 비교하면 숫자가 많지 않죠. 하지만 대구 지역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대형 브랜드 못지않게 브랜드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쓴 책 《핸즈커피 이야기》에 자세히 적었는데 한마디로 지역 브랜드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도 경험도 없이 창업한 매장을 모델 삼아 가맹 전개를 하다 보니 타 지역으로 확장할 만한 재정적, 인적 자산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가진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늘 고민했는데 그 고민의 해답 중에 하나가 지역 브랜드 전략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한 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의미였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 ‘서울 진출’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 진출을 한 후 브랜드가 쇠락해 가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브랜드 확장을 못한 것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고 자존심 담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커피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겼다가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핸드커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살아남은 비결은?

2006년 창업할 당시 지역에도 이미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업력이 10년 이상 된 브랜드도 있었고요. 그 브랜드들 경영자들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가맹점이 많아도 본부 인원은 5명 전후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속에서 의문이 든 부분이었죠. 어떻게 그 인원으로 그 많은 가맹점을 관리한다는 말이지? 장사만 잘 되면 되지 본부가 클 필요가 없다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힘에 겹도록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하고 집중했죠. 가맹을 전개하고 돈을 벌면 제조업과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거의 50호점을 넘기기 전까지 저희는 늘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호점을 바라보고 더 많은 매장을 관리하는 체인 본부를 꿈꾸며 조직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개인의 아이디어나 헌신으로는 넘을 수 없는 산을 넘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GOOD TO GREAT》의 저자 짐 콜린스의 말대로 “비즈니스는 단순 제로섬 게임이나 잉여 가치의 착취 같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팀워크와 조직 문화가 만들어 내는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이었죠.

커피 관련 강의와 교육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교육은 어떤 힘을 갖고 있나요?

커피를 객관화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각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죠. 그림도 음악도 미술도 음식도 감각을 이용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객관화해서 평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거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권위가 꼭 필요합니다. 콩쿨에서 우승했다거나 세계 바



창립 18주년 기념

리스트라 챔피언이라거나, 서울대 대학원 박사 출신이라거나, 삼성그룹 같은 대자본이 투자한 브랜드라거나 하는 권위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 상품을 가치 있게 보게 됩니다.

이런 권위는 브랜드 런칭 초기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런 면에서 교육은 배경에 강력한 권위를 주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 진출하면서 제일 먼저 중국 연변과 기대 사회교육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서 커피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1년간 104명의 바리스타를 배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연변에 핸드커피를 오픈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수업료를 내고 시간을 쪼개서 공부한 커피 지식이 핸드커피란 브랜드의 신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달 후 연길 1호점을 오픈했더니 그들이 모두 우리 브랜드의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 바텐에서 메뉴를 만드는 광경은 저들에게 권위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중국사업부를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에 그런 권위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이유가 있다면?

회계는 한마디로 어머니 경영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오셔도 어머니가 관리를 못하면 가정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얼마를 벌어서 오시든 그 돈으로 빚지지 않고 살아 내셨습니다. 이 어머니 경영을 회계가 감당하는 것이죠. 많은 경영자들이 매출에만 집중하고 회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머니 경영은 상상 이상으로 기업에게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어머니 경영’을 잘 하는 기업은 현재 상태에서 이익을 내는 방법을 알고, 그런 기업은 M&A도 할 수 있는 기업이 됩니다.

회계를 잘 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자본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



《핸즈커피 이야기》 출판기념회

게 됩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늘 자신이 흠수저라서 기회를 놓쳤다는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회계공부부터 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경영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는 커피는 어떤 커피인가요?

과거에는 이 질문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커피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이니 할 말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커피가 일상이 된 시간이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커피보다 어떨 때 커피가 가장 맛있는지 답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맛있는 커피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데 커피가 가장 맛있어지는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늦잠을 자고 등산을 하거나 달리기를 한 후 샤워를 하고 사무실에 가서 책을 읽는 것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제 공간에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 내려마시는 커피는 여전히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여유와 지혜, 울림과 평안이 저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지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책 펴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난 5월 책을 내셨습니다. 책을 내게 된 이유가 있다면?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후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를 찾는 이들은 주로 소상공인들이죠. 그들은 경영에 대해 묻고, 인사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은 어떻게 만드는지 묻습니다.

창업하고 몇 년 동안 장사를 잘 했는데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저는 경영학자도 컨설턴트도 아니기에 제가 경험했던 일과 배운 교훈, 그동안 시도했던 방법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이들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 저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의 조언과 지혜 격려 덕분에 오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의 복이었죠. 그들에게 받은 지혜와 지식이 없었다면 지금의 핸드커피는 없었을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을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김지호 엔젤의 강력한 추천으로 축구천사 날개 달아

어떻게 해서 대구FC엔젤클럽에 가입하게 되셨나요?

저보다 먼저 엔젤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김지호 엔젤의 강력한 추천으로 가입하게 되었죠. 축구장에 한번 와 보시지 않겠느냐고 해서 축구를 잘 못하지만 관람하는 건 좋아해서 한번 가 봤는데 그날 대박의 분위기에 완전 매료되었습니다.

엔젤클럽과 대구FC에 바라는 점은?

대구FC가 유일한 시민구단이란 점은 대구시민들과 엔젤클럽 회원들의 자부심이자 함께할 수 있는 명분입니다. 존재 자체가 가치이니까요. 저는 대구FC가 끝까지 시민구단으로 남아 시민구단도 리그 1위를 할 수 있다는 사려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의 도시가 한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대 자본의 힘을 뛰어넘는 시민구단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삶의 힘은 네둥이!



네 아이 아빠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이들이 삶의 원동력, 나의 모든 것

김승필 엔젤

(주)삼성프린팅솔루션 대표

김민주(고2), 연주(중3), 나연(초3), 규민(초1)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네 아이의 아빠 김승필 엔젤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산다. 2024년 11월 대구 서구 디센터1976 지식산업센터에 위치한 (주)삼성프린팅솔루션 사무실에서 만난 김승필 엔젤은 무척 바빴다. 인터뷰 일정 잡기도 빠듯했고, 인터뷰 중에도 거래처의 전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다. 단정한 머리에 캐주얼 한 복장이 누가 봐도 초등학교 학부모 다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새해에 고3 올라가는 딸이 있다. 나이도 오십이 지척이다. 요즘 결혼과 출산 나이가 일정치 않아지면서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가면 50대에서 3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늦둥이라고 해도 특별하지 않지만, 김승필 엔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규민이를 생각해 언제나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김승필 엔젤은 어떻게 네둥이 아빠가 되었을까? “결혼 전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재미 삼아 궁합을 봤습니다. 아내와 제가 잘 맞는 사주라고 하더군요. 결혼한다면 아이를 넷이나 낳고 잘 살거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옳아기는 옳았던 모양입니다. 정말 네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김승필 엔젤은 특별히 자신이 애국자라기보다는 살다보니 운명처럼 네 아이 아빠가 됐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삶의 동기부여가 됐고, 더 열심히 살았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사업도 함께 성장했던 것이다. 지난 2006년 11월,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임직원이 8명이 되는 알짜 회사로 키워냈다. 복합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와, 그에 따른 각종 소모품을 전문적으로 렌탈 및 공급 하면서 거래처를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신뢰를 쌓아온 덕분인지, 큰 영향이 없는 눈치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이 주는 축복 같아 그는 늘 감사해 한다.

“저는 아이들이 큰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밖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내가 아빠 뒤통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줘요. 그런 아내가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하여간 경상도 남자들이란...”

새해에는 막둥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된다. 아이들이 자라니 알아서 제 앞가림을 다 한다. 무엇보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살림꾼이다. 동생을 돌보는데도 여간 야무지지 않다. 그래서 김승필 엔젤과 아내는 마음 편하게 함께 외출을 한다. 잘 자란 네둥이의 힘이다.

A HAPPY LIFE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김승필 엔젤은 어려서부터 드라이버를 갖고 전자부품이나 기기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의 아버지는 김승필 엔젤이 매일 전자부품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모습을 못마땅해했다. 급기야 보물상자 같았던 전자부품, 제품들을 모두 치워버렸고 오직 공부만 강요했다. 김승필 엔젤은 아버지의 심려를 끼치지 싫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러다 군대를 제대한 후 우연찮게 프린터, 복합기, 오피스 솔루션을 다루는 S사에 입사했다. 그때부터 김승필 엔젤의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엔지니어의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인생의 또 다른 아버지'라고 부를 좋은 인연도 만났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 퇴근 후에도 남아서 기기들을 다루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다. 힘들다기보다는 마냥 행복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갖는다는 것은 행운이고 그만큼 행복한 것이기 때문이니까.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김승필 엔젤은 그래서 네 아이에게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강조한다. 큰딸 민주는 미술을 좋아한다. 주위로부터 재능 있다는 칭찬도 받는다. 실제로 민주는 동생들의 캐릭터를 스티커로 제작해 아이들의 소지품에 붙여줄 정도다. 김승필 엔젤은 그런 민주를 지켜보며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한다. 연주, 나연, 규민이도 마찬가지다. 김승필 엔젤은 아이들이 앞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빠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게 아이들의 행복이자 그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또 다른 덕목은 '자립심'이다. 그는 "부모가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 한 후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필요하다면 조언은 해주겠지만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묵묵히 응원하는 것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자신의 교육 철학을 밝혔다.

막내의 돌을 맞아 가족 모두 행복하게 활짝 웃고 있다.



김승필 엔젤은 어느새 아이들이 자라 서로 도우며 힘이 되는 것을 보며 흐뭇해 하고 있다.

대구FC 창단 때부터 관심 많아, 엔젤클럽 알고부터 후원 시작

김승필 엔젤은 창단 당시부터 대구FC에 관심이 많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 인기가 대단했지요. 그 분위기를 바탕으로 시민구단 대구FC도 창단됐습니다. 해프닝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대구FC 이름을 공모할 때 대구시의 시조(市鳥)가 독수리여서 '대구이글스'로 하자는 말까지 있었지요. 그런 에피소드를 기억할 정도로 대구FC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경기장이었다. 창단 후 김승필 엔젤은 대구스타디움을 찾았지만, 대형 종합운동장이다보니 축구 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몇 번을 찾아갔지만,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관심도 멀어졌다. 그러다 학교 선배인 서찬교 엔젤로부터 엔젤클럽을 알게 되었고, 2016년에 가입하게 됐다.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축구사랑이 곧 대구사랑'이라는 엔젤클럽의 슬로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 후 9년을 변함없이 후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김승필 엔젤은 대박에는 한 번도 온적이 없다. 아이들이 크다 보니 스케줄 맞추기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긋날 때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꼭 네둥이와 함께 대박에 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2025년에는 대박에서 네둥이를 보기를 희망해 본다.

한편, 김승필 엔젤은 "엔젤 중에 다둥이 아빠가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책이 부족했지만, 요즘은 지원책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아이들을 가졌으면 한다. 우리 삶에 있어 아이들 만큼 축복된 것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도 네 아이 아빠 김승필 엔젤은 천사 같은 아이들을 위해 힘차게 내달린다. 아빠 만세다!

내년에는
꼭 네둥이와 함께
대박에 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ANGEL NEWS

이재하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 서상돈상 수상

이재하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삼보모토스(주) 회장)이 매일신문·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3회 서상돈상을 수상했다. 이재하 회장은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 경영인으로, 1995년 (주)삼보모토스(현 삼보모토스(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대구경북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제품의 질을 우선시해 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의 경쟁력을 꾸준히 키우고, 나아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인정받아 1억불 수출의 탑,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했다.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대구FC 이사회 회장을 맡았던 이재하 회장은 지난 2017년 대구FC엔젤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이호경 회장에게 연락을 해서 다이아몬드 엔젤 1호로 엔젤클럽에 가입,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구FC를 후원해오고 있다.



김성곤 호텔인터볼고 대구 대표 대통령표창

김성곤 (주)즐거우세상 바르미 호텔인터볼고 대구 대표(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2024년 9월 27일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관광 숙박업 분야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김 대표는 대구관광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로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이번에 표창을 받았다. 또한,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을 꾸준히 지원하는 등 엔젤클럽이 자리 잡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김성곤 대표는 “모든 것이 서기수 회장님과 임직원, 그리고 고객님들 덕분이다. 앞으로 지역관광 발전을 위하여 더 힘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엔젤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시민구단 대구FC를 후원하는 엔젤클럽의 회원님들을 늘 존경한다. 힘닿는 대로 엔젤클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준기 엔젤클럽 자문위원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상 특별상 수상

송준기 엔젤클럽 자문위원(자산치과 대표원장)이 제48회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을 역임한 송 자문위원은 서문시장 화재, 태풍,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구호활동을 주도했고, 모금 프로그램 행사 개최, 무료급식소 운영,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이번에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2025년 2월경에 진행될 예정이다.



DAEGU FC ANGEL CLUB

최태원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대구시축구협회장 당선

최태원 엔젤클럽 상임부회장(사진 오른쪽)이 제13대 대구시축구협회장으로 선출돼 2024년 12월 30일 대구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당선증'(사진)을 받았다. 최태원 신임회장은 2024년 12월 22일 대구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축구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단일 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됐다. 이로써 최 신임 회장은 2025년 1월 21일부터 4년간 대구시축구협회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최태원 신임 대구시축구협회장은 계명대 대학원에서 축구 관련 논문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계명대 체육대학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대구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대구시축구협회 부회장 ▷대구시풋살연맹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대구FC 이사와 대구FC엔젤클럽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 회장은 “대구 축구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지역 축구계와 대구FC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채인수 엔젤, 대구 달서구축구협회 제19대 회장으로 선출 엔젤클럽, 박명규 제18대 회장 감사패 전달

채인수 엔젤(주)효성텍스타일 대표·사진 왼쪽)이 제19대 대구 달서구축구협회장에 선출됐다. 2025년 1월 19일 취임식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채인수 신임 회장은 “축구가 좋아서 30년 넘게 동호인 축구를 해왔다. 앞으로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특히 다른 구군의 회장님과 의논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엔젤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채인수 신임 회장은 엔젤회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3년 3월 엔젤에 가입한 최 신임 회장은 대구FC 선수들을 변함없이 후원하는 한편, 최근 5명의 신임 엔젤을 릴레이 하는 등 엔젤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대구FC엔젤클럽에서는 제18대 대구 달서구축구협회장으로 지역 축구 발전에 기여한 박명규 엔젤(주)우진설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명규 엔젤은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고 엔젤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며 채인수 신임 회장을 엔젤에 추천한 바 있다.



2025년 엔젤FC 감독에 이종우 엔젤 선임, 단장은 안상영 엔젤 선임

이종우 엔젤(신흥산기 대표·사진 왼쪽)이 2025년 엔젤FC 감독에 선임됐다. 단장은 2024년 엔젤FC를 이끌었던 안상영 엔젤(주)광진종합건설 대표·사진 오른쪽)이 연임한다. '엔젤FC는 여느 축구팀과 다르다'는 이종우 신임 감독은 “엔젤FC의 발전은 물론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최근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단장과 함께 보다 즐겁고 행복한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대구FC엔젤클럽의 축구대표팀 '엔젤FC'는 엔젤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축구대회를 주관한다.



대구FC 유소년 후원 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

시월의 마지막 날,
축구천사들의 행복한 라운딩

청명한 가을날 1백여 명 엔젤 참가 친선 도모
박상욱 엔젤 대회 첫 홀인원 겹경사



하늘은 높고, 햇살은 찬란한 시월의 마지막 날! 1백여 명의 축구 천사들이 푸른 잔디 위에 모여 하나가 됐다. 바로 올해로 5회째로 열린 대구FC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흐렸던 날씨가 이날 만큼은 화창했다. 바람도 잠잠해서 좋은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기에는 최고의 조건이었다. 이 대회는 무엇보다 대구FC 유소년 선수들을 후원한다는 의미에서 뜻깊다. 특히, 올해는 정영재 (주)3H회장이 3H 침대를 홀인원 상품으로 기증해 화제를 모았고, 박상욱 엔젤이 스카이하일 3번에서 대회상 처음으로 홀인원을 기록하는 등 술한 이야기를 남겼다.

지난해에 이어 경산 인터불고CC에서 열린 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는 올해는 대회장을 별도로 위촉하고 준비위원회도 팀장 중심으로 구성해 풍성하게 준비했다. 대회장은 김영만 다이아몬드 아너스 엔젤((주)우성철강 회장)이 맡았고 김동국 준비위원 팀장을 중심으로 김규정, 박혜영, 권주택, 김재우, 노성식, 조태근, 김준영, 권태운 엔젤로 꾸려졌다. 경기위원장은 박주현 엔젤이 지난해에 이어 수고했다.

이번에 준비위원회 팀장을 맡은 김동국 엔젤은 바쁜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매주 수요조찬회의에 참석해 대회 일정을 챙겼고, 캐디백, 보스턴백, 골프볼, 2011 US오픈 참가 기념 최경주 사인 액자, 고급 와인 등 많은 물품을 후원하는 등 대회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

김영만 대회장은 “오늘 이처럼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인 것 같다.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란다.”라고 환영했다.

이번 대회에도 준비위원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다. 대회가 시작하기 3시간 전부터 미리 나와 기념품을 세팅하고 행사장을 정리했으며, 입장하는 엔젤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명찰을 일일이 나눠주었다. 올해 처음으로 준비위원이 된 권주택 엔젤은 “행사 준비를 위해 조금 일찍 나왔다. 엔젤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있었다. 대구FC 유소년 후원기금을 마련하는 대회인 만큼 후원기금도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권주택 엔젤은 후원금함을 비치한 후 먼저 10만 원을 기부하면서 술선수범하기도 했다.

최근에 엔젤에 가입해 운영이사가 된 권태운 엔젤도 아내와 함께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통닭 5만 원 쿠폰을 내놓기도 한 권태운 엔젤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이 참 좋다.”라며 특유의 미소로 활짝 웃어 보였다. 이런 준비위원들의 노력 속에 이번 대회가 한층 더 알차게 치러졌다.

대회장 등
준비위원의
철저한 준비로
풍성한 대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도 풍성한 대회였다. 경기위원장 박주현 엔젤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운동을 한 것만으로 즐거운데, 성적도 좋다. 특히 대회 사상 첫 출안원이 나오는 등 행운도 함께 한 대회였다.”라며 총평 했다. 대회 결과 신페리오(골프 경기 방식)에는 우승 이동경 엔젤, 준우승 임종규 엔젤, 그리고 3위는 김진모 엔젤이 각각 차지 했다. 최강전에는 남자 부문에 메달리스트 임상택 엔젤, 준우승 전종달 엔젤, 여자 부문에는 메달리스트 백무연 상임부회장, 준우승 노현경 엔젤이 각각 시상대에 올랐다. 가장 멀리 공을 보낸 롱기스트는 공윤욱 엔젤(남, 270m), 장수미 엔젤(여, 200m)이 영예를 안았다. 니어리스트는 최고현 엔젤(남), 고경집(여) 엔젤이 기록했다. 다버디상은 한용민 엔젤, 다파상은 무려 14개 파를 성공한 박주현 경기위원장, 다보기상은 18개 보기로 신기록을 세운 홍록환 엔젤이 각각 수상했다. 행운상은 조민지 엔젤이 받았다.



명에 엔젤 박정일 대구FC 장내 아나운서 진행, 풍성한 경품 잔치

이외에도 이번 대회는 명에 엔젤 박정일 대구FC장내 아나운서의 진행 속에, 대구FC와 많은 엔젤들이 협찬을 통해 즐거운 경품 추첨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했다. 특히, 박익진 엔젤이 기증한 작품인 '바다 일출'은 권태윤 엔젤이 받았고, 유주희 화가가 기증한 2점의 작품은 김진모, 김재우 엔젤에게 각각 돌아갔다. 또한, 김동국 준비위원회 팀장이 내놓은 캐디백과 보스턴백은 이재만엔젤이, 2011 US오픈 참가 기념 최경주 사인 액자는 강정훈 골스튜디오 대표가 차지했다. 골스튜디오 강정훈 대표가 준비한 캐디백, 토트백은 박호정 다이아몬드아너스엔젤이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은 "무엇보다 우리들이 엔젤이어서 하늘이 감동해서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것 같다.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 힘써 주신 김영만 대회장을 비롯 박주현 경기위원장과 김동국 준비위원회 팀장과 준비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덕분에 성황을 이룬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FC 첫 구단주로 기반을 다졌던 김범일 전 대구시장은 "엔젤 여러분 고맙고 자랑스롭다. 엔젤 조직은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들다. 관이 아니라 순수 민간이 나서는 사례는 잘 없었다. 앞으로 대구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홀인원 상품을 기부한 정영재 (주)3H회장은 "축구선수 출신인 만큼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한다. 엔젤클럽이 대구FC와 유소년 후원 등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을 알게 돼 늦게라도 참여하게 됐다."라며 "홀인원이 나와 너무 기쁘다. 3H 침대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뻐했다.



대회장 김영만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 | (주)우성철강 회장

이번 대회는 행운이 가득한 대회
좋은 날씨, 좋은 사람, 홀인원과 함께한 즐겁고 뜻깊었던 대회
준비해 준 모든 분, 참석한 모든 분께 행운 가득하기를

“금년 초에 토정비결을 봤는데 시월 달에 좋은 일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엔젤 친선 골프대회의 대회장을 맞아 달라는 뜻이었던 모양입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한 행운이 가득한 대회였습니다.”

‘2024년 대구FC 유소년 기금 마련 엔젤클럽회원 친선 골프대회’ 대회장을 맡은 김영만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주)우성철강 회장은 골프대회가 끝난 뒤 열린 만찬장에서 이날 날씨만큼 환하게 웃었다. 김 회장은 “오늘 날씨도 밝고 여러분 표정도 밝다. 정말 대운이 담긴 대회다.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다.”라며 덕담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김 회장은 골프대회가 마무리된 뒤 열린 만찬행사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에 놀랐다.

“보통 골프대회를 하면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회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엔젤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한 분도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도 뒤늦게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신 걸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엔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여기에 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가 대구FC 유소년 후원을 하는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회 분위기나 참가 열기가 확실히 다른 골프대회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준비한 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 않았다. “오늘 날씨는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흔히 이런 날씨는 부강한 사람의 인덕과도 같다고도 하지요. 대회장은 저이지만 부강은 이호경 회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인덕에 탄복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한 박주현 경기위원장, 김동국 준비위원회 팀장을 비롯 준비위원들의 수고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지난 2022년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에 가입한 김영만 회장은 그전까지는 축구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차에 사심없이 엔젤클럽을 위해 뛰어다니는 이호경 회장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흔쾌히 엔젤에 가입했다.

“우리 대구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단결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호경’이라는 젊은 분이 자기 시간과 금전을 쏟아 부으면서 축구를 통해 대구를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받았지요.”

김 회장은 좋은 날씨 속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데다 홀인원까지 나오는데 등 여러모로 축복받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엔젤회원들이 더욱 하나가 돼 대구FC의 발전은 물론, 우리 대구를 더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내 인생의 첫 홀인원은 엔젤과 함께!

박상욱 엔젤
(주)코람 대표

대구FC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 스카이홀 3번 많은 엔젤들 축복 속에 홀인원상으로 3H 침대 받아 유소년 후원기금으로 200만 원 기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홀인원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축구천사 엔젤과 함께 한 제 인생의 첫 홀인원이었습니다.” 유소년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대구FC 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에서 첫 홀인원이 나왔다. 행운의 주인공은 올해 처음 참석한 박상욱 엔젤클럽 운영이사다. 골프를 시작한지 2년 만에 나온 경사다. 스스로도 놀랐다. 박상욱 엔젤은 윤우일, 조민지, 박성주 엔젤과 한조로 경기에 나서 스카이홀 3번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다. 박상욱 엔젤은 홀인원과 함께 이날 홀인원 상으로 정영재 3H회장이 경품으로 내놓은 침대도 받았다. 박상욱 엔젤은 “첫 출전해서 홀인원까지 해서 너무 기쁘는데, 좋은 상까지 받아 행복하다. 엔젤회원은 물론, 홀인원 상품을 제공해주신 정영재 3H회장께 감사드린다.”고 기뻐했다. 박상욱 엔젤은 이날 사실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았다. 1, 2번 홀에서 훅이 나는 등 마음대로 공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천천히, 짧게, 부드럽게 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홀까지 148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7번 아이언을 잡았겠지만, 6번을 잡고 그린 근처로 갖다 놓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 스윙으로 똑바로 보내겠다고 친 순간, 잘 맞았다 싶었죠.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공도 똑바로 홀을 향해 날아갔어요.” 잘 맞는 했지만, 아마도 홈업을 지나갔을 거라 생각했다. 그린 근처만 가

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카트를 타고 갔더니 세 명의 공은 있는데 자신의 공은 없었다. “윤우일 엔젤님이 ‘홀인원’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설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홈업 안을 보시더니 ‘홀인원’이라고 하시더군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좋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큰절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기쁜 마음에 홈업을 향해 큰절을 넘썬했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이었지요.” 박상욱 엔젤은 그 이후 라운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분이 이상했다고 한다. 다른 홀의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많은 엔젤들의 축하 속에 꿈을 꾸듯 페어웨이를 지나쳤다. “그날 너무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고 악수를 해서인지 집에 가니 손과 팔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분만은 좋았습니다. ‘아! 이게 홀인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욱 엔젤은 감사의 뜻으로 대구FC 유소년을 위한 기금으로 써 달라며 2백만 원을 기부해 홀인원의 의미를 빛냈다.

- 1 화장한 날씨 맑은 햇살이 박상욱 엔젤에 쏟아진다.
- 2 첫 홀인원을 기록한 박상욱 엔젤은 홀인원상으로 3H 침대를 받았다.
- 3 스카이홀 3번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박상욱 엔젤이 기뻐하고 있다.
- 4 홀인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큰절을 하는 박상욱 엔젤



부모님과 함께 대구 인근 3대 골프장 홀인원 달성

박상욱 엔젤의 가족은 홀인원과 인연이 깊다. 부친인 박준곤 송곡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한 번, 그리고 모친 오경숙 여사는 두 번의 홀인원을 했다. 부모님은 대구CC와 팔공CC에서 홀인원을 기록, 인터불고CC와는 인연이 멀었는데 이번에 박상욱 엔젤의 홀인원으로 대구 인근 지역 3대 골프장의 홀인원을 박상욱 엔젤 가족이 달성한 것이다. 한마디로 홀인원 DNA가 있었던 것이다. 박상욱 엔젤은 엔젤 DNA도 있다. 부친인 박준곤 이사장이 지난 2019년 엔젤에 가입한 후, 2022년부터 엔젤을 승계해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엔젤클럽 운영이사로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박상욱 엔젤은 실제로 대구FC 팬이었다. 대구FC가 대구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쓸 때 자주 갔었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육상 경기장으로 트랙 때문에 관중석과 그라운드가 너무 멀어

현장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렇게 대구FC와 멀어졌다가 엔젤이 된 후 다시 대박을 찾게 됐다. “오늘 홀인원 한 것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스타디움과 대박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대박은 대구FC를 위한 홀인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축구에 있어서도 시스템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박상욱 엔젤이 대표로 있는 (주)코람은 특수못, 볼트, 너트 등 금속가공 제품을 제조해 해외로 수출하는 알짜기업이다. 조부 고(故) 송곡(松谷) 박규삼 코람스틸 명예회장과 부친인 박준곤 회장에 이어 박상욱 엔젤이 가업을 이어받아 75년째 특수못 분야에서 코람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가업과 엔젤을 승계받은 박상욱 엔젤은 2024년 대구FC의 부진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때 우리 회사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임직원이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했다. 대구FC 역시 선수와 감독 코칭스태프는 물론, 프런트와 시민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욱 엔젤은 송곡문화장학재단 운영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곡문화재단은 고(故) 송곡(松谷) 박규삼 (주)코람 명예회장의 유지에 따라 지난 2010월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등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 이 기사는 2024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엔젤클럽

대구FC 유스팀 국제축구대회 참가 지원

엔젤 친선골프대회에 모은 기금 1,500만 원 전달
대구FC 유소년 팀, TAISHOEN CUP,
JUSTO CUP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대구FC 유소년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의미있는 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친선골프대회가 단순한 친목쌓기를 넘어서 대구FC 유소년들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엔젤클럽은 그동안 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에서 걷힌 기금으로 지역 유소년들을 지원해왔고, 특히 올해는 대구FC U-11, 12 선수들의 국제 축구경기 참가를 지원하면서 선수들의 국제 경험 및 교류에 한 몫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선수들과 경기를 앞둔 대구FC 유소년 선수들의 당당한 모습



대구FC 유스팀 후원금 전달식에서 대구FC U-12 선수와 코칭스태프, 학부모, 엔젤 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4년 5월 22일 대구FC유소년센터에서는 대구FC U-12 코칭스태프와 선수, 학부모, 대구FC 구단 관계자, 그리고 엔젤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난 2023년 10월 31일 열린 유소년축구 후원 대구FC엔젤클럽 친선 골프대회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후원금으로 대구FC U-11 선수들은 2024년 5월 25일부터 26일 동안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서 열리는 제16회 大昌園杯(TAISHOEN CUP) U-12 축구대회(32개 팀)에 참가했으며, 대구FC U-12 선수들은 2024년 6월 1일부터 2일까지 열린 2024 일본 후쿠오카현 JUSTO CUP 유소년 축구대회(한국 등 해외 포함 24개 팀)에 참가해 국제 경험을 쌓았다.

친선골프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성점화 다이아몬드아너스 엔젤((주)뉴프라임 대표)은 “시민구단 대구FC의 미래는 바로 우리 지역 유소년들에게 있다. 이번 후원을 통해 대구FC 유소년 선수들이 국제경기 경험을 쌓아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후원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FC U-12 주장 신민준 선수의 어머니 정선옥 씨는 “엔젤클럽의 후원으로 뜻깊은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선수와 학부모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좋은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할 것 같다. 엔젤클럽의 따뜻한 후원에 감사 드린다.”고 답했다.



(위) 친선경기를 통해 축구 교류는 물론 우정을 쌓는 양국의 축구 꿈나무들
(아래) 구루메시방문단이 엔젤클럽을 방문했다.



엔젤클럽 티셔츠를 입고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한 대구FC 유소년 선수들

대구시와 구루메시 학부모 홈스테이 지원, 양국 유소년 우정 쌓아

대회 기간 동안 구루메시의 학부모들은 홈스테이를 통해 대구FC 유소년 선수들이 편하게 일본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대한 답방으로 2024년 10월에는 구루메시 유소년 선수들이 대구를 방문, 대구FC 유소년 선수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는 하는 등 양국 유소년 선수들이 축구 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루메시축구협회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대구iM뱅크파크와 대구 곳곳을 투어하고 대구FC 경기를 참관했으며, 하프타임에는 엔젤클럽을 찾아 엔젤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엔젤클럽에서도 시민구단 대구FC와 엔젤클럽 창립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준비하는 등 구루메시방문단을 반갑게 맞았으며, 앞으로 상호 교류를 이어가기로 입을 모았다.

이호경 회장은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우리 대구FC 유소년 선수들을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대구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 가고 앞으로 축구를 통해 좋은 교류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엔젤들의 환영을 받은 구루메시축구협회 가토 유이치로 단장은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 보고 좋은 분들과 함께 해서 반갑다. 엔젤클럽과 대구FC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일본에서도 응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구FC 유소년 학부모들이 일본 유소년 선수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양국 유소년 선수들은 홈스테이를 통해 우정을 돈독히 했다.

이번 계기로 축구를 통한 양국의 민간 교류 확대 기대

이처럼 올해 첫 실시한 엔젤클럽의 대구FC 유소년 국제대회 참가 지원 사업은 많은 이야기를 남기며 축구를 통해 양국이 건전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

대구FC 유소년 선수들을 이끌고 일본에 다녀온 최태원 엔젤클럽 상임 부회장은 “과거와 달리 대구FC 유소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어린 선수들이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아울러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유소년 선수들과 교류함으로써 건전한 인격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 부회장은 일본 구루메시의 大昌園杯(TAISHOEN CUP)축구대회를 후원한 大昌園 대표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했다. 최 부회장은 “재일교포인 그가 개회식에서 한국말로 ‘한국팀들이 대회에 참가해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많이 참석해 달라’고 인사해 감동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팀 임원들과 선수들을 大昌園 식당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환대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의 교류가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지난 6월 대구FC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 일본 후쿠오카현 JUSTO CUP 유소년 축구대회에 다녀온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손지훈 과장은 “일본 현지에서 대구FC 로고를 가슴에 달고, 뽀뽀 뽀뽀 파이팅하는 유소년 선수들을 직접 보면서 한편으로는 흥분됐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마련돼 우리 유소년 선수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 대구FC 라인업



태양 엠블럼의 불꽃을 모티브로
제작된 2025년 유니폼을 입고
마음껏 그라운드를 누빌
대구FC 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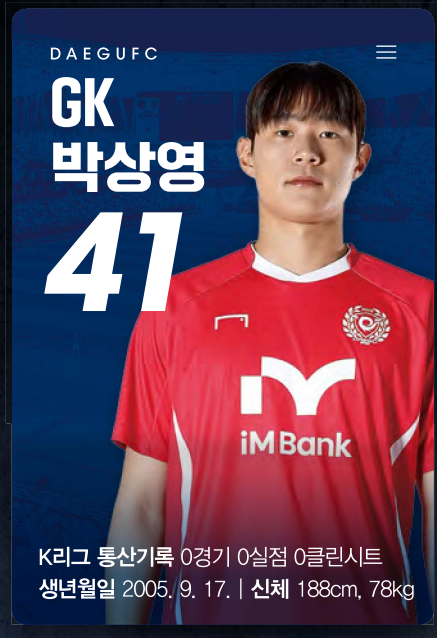












대구FC엔젤클럽이

2025년 대구FC 선수를 응원합니다.



대영에코건설(주) 이호경 회장



세영회계법인
강병규 상임부회장



(주)창성산업
정소영 상임부회장



아트건설
박기원 상임부회장



이지컴퍼니(주)
조승우 상임부회장



(주)뷰티코하트
백무연 상임부회장



대구시축구협회
최태원 상임부회장



오늘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정영 홍보실장



히아브하나서비스
김상수 상임이사



(주)한결테크닉스
김준영 상임이사



(주)빌사부
송원배 상임이사



(주)광진종합건설
안상영 상임이사



장스폴인
장원용 상임이사



(주)다원아이디
정영준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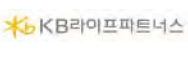
히야컴퍼니
조태근 상임이사



대구통달
권태운 운영이사



(주)고위드
금영일 운영이사



KB라이프파트너스
김강수 운영이사



케이지에이에셋(주)
다음지사
김규정 운영이사



(주)퍼시픽링크스
코리아 대구지사
김동국 운영이사



피자팜비어
대구FC침산점
김동규 운영이사



부경TS
김상덕 운영이사



한즈커피 대구미술관점
김지호 운영이사



(주)도시와풍경
종합건축사사무소
노성식 운영이사



뉴부림고속관광
문홍국 운영이사



(주)코람
박상욱 운영이사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성수 운영이사



대구FS
박성호 운영이사



(주)문화이야기
박준규 운영이사



HB신소재
박태범 운영이사



(주)서진토목엔지니어링
서동국 운영이사



석산복어
석재철 운영이사



백천축구클럽
송인영 운영이사



방어진 참가지미
범어점, 동촌유원지점
이승임 운영이사



(주)모든더케어존
이승현 운영이사



상동버거
이윤희 운영이사



(주)선미
이칠모 운영이사



라벨바즈
조민지 운영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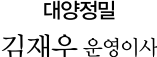
디자인해일
조병래 운영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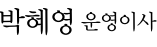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제연 홍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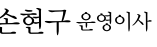
영진기공
현정규 운영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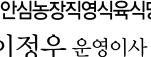
대양정밀
김재우 운영이사
(주)우신산업
황재민 운영이사



박혜영 운영이사



손현구 운영이사



(주)안심농장직영식육식당
이정우 운영이사

Diamond Angel

대구FC엔젤클럽, 대구FC와 영원히!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진영환
삼익THK(주)



조종수
(주)서한



노기원
(주)태왕이앤씨



김동구
금복홀딩스(주)



이명수
(주)진양오일실



박해대
미래테크(주)



박효정
홈마트 시지점, 옥산점



김영만
우성철강(주)



김재홍
대호약품



정태호
대영코어텍(주)



이충곤
SL(주)



백서재
대영전자(주)



김상태
(주)PHC



성점화
(주)뉴프라임



김용범
(주)에스알



박상홍
글로벌지스텍스(주)



조윤희
대운오토모티브(주)



홍정민
경산버스(주)



박윤경
케이케이(주)



이기환
거한건설(주)



현수환
(주)동원약품



황인혁
인성데이터(주)



최영수
크레텍



이창원
거림테크(주)



김지영
비엘에프



이상규
(주)머니무브



정영재
(주)3H



※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순입니다.

100년 엔젤의 뿌리 5년 엔젤!

축구사랑, 대구사랑의 얼굴들입니다.



강윤석 엔젤
(주)조안 대표



고경집 엔젤



권오복 엔젤
(주)진명아이엔씨



권오중 엔젤
(주)대유기전공사



김남호 엔젤
더원창호



김보성 엔젤
(주)가은메디칼



김우일 엔젤
(주)김샘교육



김원수 엔젤
세무사 김원수 사무소



김재우 엔젤
(주)삼일기업



김정미 엔젤
멀티에드



김종철 엔젤
신흥버스(주)



김진홍 엔젤
수성우체국



대구광역시의료사회
대구광역시의료사회 단체엔젤



문홍국 엔젤
뉴부림고속관광(주)



박경식 엔젤
이원의료재단



박금화 엔젤



방원주 엔젤
(주)포항연합티앤아이



서대구JC특우회 단체엔젤



박소민 엔젤
디자인그린



반용석 엔젤
반치과



서동국 엔젤
(주)서진토목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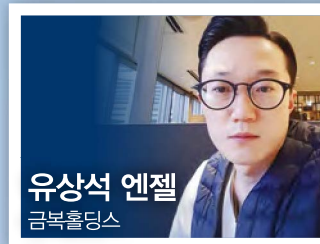
손성태 엔젤
에스제이에프(주)



엄재국 엔젤
(주)포맨



여상훈 엔젤
법무법인(유한)클래스



유상석 엔젤
금복황당스



이광해 엔젤
아사다라 한우셀프센터



이동환 엔젤
(주)폴토레



이명현 엔젤
(주)동광명품도어



이승용 엔젤(좌)
에스와이메디



이재호 엔젤
한경회계법인



정태균 엔젤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조장형 엔젤
(주)나래피움



차상대 엔젤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주)



최종춘 엔젤
아인종합건강보험사사무소



최주열 엔젤
팔달요양병원



하영구 엔젤
(주)장원식품



형충희 엔젤
태양인이제마한의원



황재민 엔젤
(주)우신산업

※ 202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대구FC Angel Club 2024 신입 엔젤



대구FC Angel Club 엔젤

성명	회사명
김병원	(주)세명개발자원
강동인	계성초등학교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강봉근	미소꽃도매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강신일	대영리츠건설(주)
강윤석	(주)조안
강일규	대서산업(주)
강정숙	테라앤수(주)
강정영	오늘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종구	현대코퍼레이션(주)
강준기	(주)포머스
강철원	(주)예일커뮤니케이션즈
강현영	UNION 축구클럽
강환수	(주)덕산코트랜
경산상공회의소	
고경집	
고민환	(주)상산건설
고삼규	보광병원
공영우	동성건재판매(주)
공윤욱	울성회계법인
공제영	(주)신성건설
곽덕섭	(주)태명개발
곽동호	곽치과병원
곽문규	경북대학교
곽재훈	윤경재단
곽진섭	(주)금오조경개발
곽진순	초석 세무회계 사무소
곽진훈	(주)삼보스틸
구정화	(주)대영건설
구학회	덕영치과병원
권경훈	새강북연합정형외과
권근환	(주)정의로

성명	회사명
권미숙	자메이카 카페
권병규	(주)화인산업
권석원	동진건설(주)
권세기	제이솔루션
권시원	(주)중산도시개발
권영갑	(주)EMS
권영기	(주)문성전자
권영수	(주)신대영사
권영희	(주)한국알파시스템
권오길	한성건설주식회사
권오복	(주)진명아이앤씨
권오상	권오상 법률사무소
권오상	(주)대광솔라
권오순	(주)디에스시스템
권오중	(주)대유기전공사
권오춘	(주)아름다운건설
권일경	(주)위드
권장대	(주)세화정공
권재득	(주)벽진산업
권주택	(주)갑산전기
권춘익	열린구강내과치과의원
권태경	태형기공
권태윤	대구통닭
권혁기	(주)산동개발
금영일	(주)고위드
김갑태	(주)아름
김강수	푸르덴셜생명
김경록	신도대구사무기
김경식	대곡자동차매매상사
김관한	에스엔 인터내셔널
김광수	(주)한맥창호
김귀현	VAMOS 축구센터
김규정	케이지에이에셋(주) 다음지사
김근호	FNC STORY

성명	회사명
김기나	브이성형외과
김남호	더원창호
김대엽	(주)대영일루션
김도균	(주)경신유통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김동국	DK글로벌코리아
김동규	피자팝비어 대구FC침산점
김동석	박히트
김동조	(주)플레이위즈
김동휘	굿네이버스
김말분	
김명용	(주)명성
김명재	브라더 한정식 도시락
김명호	디딤
김민규	
김민태	동화주택
김범일	전 대구광역시장
김범현	(주)한라이앤씨
김병오	필즈학원
김보성	(주)가온메디칼
김상걸	(주)미래새한강정평가법인 대구지사
김상덕	부경TS
김상수	히아브하나(주)
김상호	(주)내일건설
김석	(주)삼덕아스콘
김석호	한도식품(주)
김성관	(주)이슬나라
김성렬	(주)대성건업
김성열	(주)아나, 아나식품
김성준	(주)지엔비모터스
김성진	엠에스시스템
김성현	(주)제이오디앤씨
김성호	(주)오상인터네셔널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턴트

성명	회사명
김소훈	코즈모
김송국	(주)탑건축디자인
김승필	삼성프린팅솔루션
김시승	(주)다원
김영식	굿락코리아
김영식	영진전공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김영호	우승사
김오동	명신종합건설(주)
김완준	(주)제이아이디
김우일	(주)김샘교육
김원수	세무사 김원수 사무소
김재범	울성회계법인
김재수	C&F
김재엽	(주)하우스탑디앤씨
김재영	(주)테힐라
김재우	대양정밀
김재우	(주)삼일기업
김재욱	(주)HD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재울	(주)영림INT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김정미	멀티애드
김정열	(주)엠에스엔터테인먼트
김정희	김정희 건강피부관리실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김종욱	(주)게림씨엔디
김종원	코오롱스포츠 대구광장점
김종철	신흥버스(주)
김종호	(주)우인바스텍
김주성	광개토병원
김주현	(주)신안피피
김주환	경안플랜트,경안솔라
김준기	BK축구센터
김준영	(주)한결테크닉스

성명	회사명
김지관	(주)그린하니컴
김지만	대구광역시축구협회
김지호	도매유리
김진모	(주)디에이치
김진성	KB라이프생명
김진엽	송산엘앤씨
김진홍	대구수성우체국
김충환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김태건	공간이룸
김태균	(주)에디커뮤니케이션즈
김태길	피앤에이
김태수	대구자동차정비조합
김태훈	(주)태경건설
김학태	(주)서진산업개발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김현철	에인에이(주)
김형동	전 대구광역시 대외협력특보
김형식	(주)동인전력
김형찬	울트라메탈
김혜정	문스터닷컴
김효용	(주)건강누리
김호준	준 애니팜
김호철	(주)더바른컴퍼니
김홍식	TBC
김효중	(주)신승스텐스틸
김희원	(주)엘림개발
나재승	(주)더모나코그룹
남경문	(주)에스엠디앤씨
남경원	(주)경원덴탈
남규동	디에이치지(주)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노성식	(주)도시와풍경
노영균	열린요양병원
노인택	(주)에이치티인테크

성명	회사명
노재관	대구청원경찰노동조합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축구협회	
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대구기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대구광역시의회사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도경록	D.O FC
도문경	
도영재	D.O FC
도우진	D.O FC
도원호	혜성정공
도재영	(주)웅진기업
류우현	정인회계법인 대구지점
류효충	신라산부인과
문근웅	군무원
문병균	신아IFA
문병일	서대구스카이
문성균	(주)명성시멘트
문승현	
문준기	대경맥주(주)
문현훈	(주)디와이덴탈스튜디오
문홍국	뉴부림고속관광(주)
민춘홍	(주)한국파이프
박경동	의료법인 경동의료재단
박경식	이원의료재단
박경우	(주)현창건설
박관식	비에스치과교정과치과의원
박금화	서라벌대학교
박기원	아트건업

성명	회사명
박기자	(주)무영
박길상	남북의료기상사
박동훈	신한금융플러스
박두한	오르다승무원학원
박명규	(주)우진설비
박명수	(주)명진금속
박민천	(주)다온PLUS
박배창	(주)청도샘물
박범석	경일정밀
박병욱	(주)달인식품
박병준	(주)홈스타홀딩스
박상욱	(주)코람
박상환	경덕철강공업(주)
박상훈	청운지엠티
박성묵	대광문화인쇄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성주	그린 플라워
박성준	
박성진	(주)꿈그린
박성호	누리전기
박성환	(주)한국엠피엘
박세진	
박소민	디자인그린
박소이	미래테크(주)
박순하	(주)코너스톤 자산운용
박승환	(주)처갓집양념치킨
박영일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박영훈	홈마트 신대점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박운규	보승종합물류(주)
박윤하	(주)우경정보기술
박은성	
박익현	(주)안전융합기술원
박인화	(주)미도위생
박정민	(주)칸여행사

성명	회사명
박종률	대성에너지(주)
박종철	(주)우일건설
박종현	리얼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박주희	주스토리
박준규	(주)문화이야기
박준혁	주식회사 무섬
박진우	(주)효성종합건설
박진형	(주)제이에이치피
박찬력	(주)KB팩토리
박찬원	문경시축구협회
박찬직	미성회계법인
박찬희	(주)구봉
박창훈	선경산업
박창희	(주)창성개발
박철웅	대구광역시축구협회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박춘선	선미(주)
박춘영	경산 인터볼고CC
박태범	(주)HB신소재
박태영	(주)케이아이티
박특환	박특환세무회계사무소
박한상	KB메탈(주)
박해동	강북요양병원
박민주	문화유치원
박혜영	
박홍식	(주)NS디자인
박희경	
박희진	은성복어
반용석	반치과
반정욱	미르건축(주)
방원주	(주)포항융합티앤아이
배경미	
배문규	승창침장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성명	회사명
배인호	성호건설(주)
배장수	진명전력(주)
배지아	제드 피트니스
배진범	미래써모텍
배태관	비앤에이
백경애	덕영치과기공소
백무연	(주)뷰티코하트, 비아이티살롱
백순정	내추럴플러스
백승욱	더나은병원
백승한	홍림곰창
백준우	D.O FC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변화곤	삼화건설(주)
사공득	태령종합건설(주)
서기수	즐거운세상 바르미 호텔인터볼고 대구
서대구JC특우회	
서동국	(주)서진토목엔지니어링
서상훈	카지수학학원
서상희	크레택책임
서순욱	(주)미래테크
서영윤	법무법인 율타리
서재원	삼층생고기집
서정욱	(주)MSC
서정원	(주)대선
서종환	(주)제일종합배관
서준덕	중앙요양병원
서찬교	(주)대원전기
서태현	(주)산동개발
서태호	한성특수금속열처리
서해진	척편한재활의학과
석재철	석산복어
석한수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성달표	(주)현대통상
성석훈	(주)명덕건설
성지현	대구풋살

성명	회사명
손대권	아이엠뱅크
손상명	(주)신아
손성태	(주)성진포머
손수완	(주)수경
손영진	학문당학원
손예성	
손지영	삼성디지털프라자 경산본점
손학수	건축사 사무소 우아
손현구	
송건일	(주)대광무도구
송국영	(주)태왕
송대호	대구광역시동구체육회
송원배	(주)대영레데코
송인영	BK축구센터
송정민	대구큰사랑요양병원
송준기	자산치과
송준호	한국PIM(주)
송창훈	(주)제이원
송채은	
송춘희	(주)대경CM
신기준	
신기창	
신기호	(주)아주산업
신동화	(주)차오른
신솔	
신용범	(주)한미산업
신인철	신안통상
신재호	경북대학교병원
신태환	태일종합건설(주)
신희영	(주)아주텍
심인철	동명테크윈(주)
안계준	신한금융그룹 신한라이프
안상영	(주)광진종합건설
안용모	경일대학교
안종열	법무법인 중원

성명	회사명
양승원	경북동부신문
양승혁	인문사
양종호	현대자동차
엄달현	(주)대창엠코
엄용희	(주)비아이에프엔디
엄재국	(주)포맨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여상훈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여인찬	(주)수안
여준현	무궁화직업전문학교
여태형	법무법인 남일
영남대학교 의료원	
예영숙	삼성생명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오대국	(주)에스디지엔텍
오세학	JM테크
오진섭	세무사 오진섭사무소
우경호	한국팜비오
우동훈	에스파스
우주택	(주)명산
우찬정	가온인테리어
원종화	(주)삼원워터
위서훈	구미동부초등학교
유상석	금복홀딩스
윤민환	씨엠케이푸드
윤병락	정원창호 디자인
윤종현	(주)세진이엔씨
윤창섭	(주)골든비
윤태경	바로본병원
윤형돈	미래에셋대우(주)
이강필	(주)지티렌트카
이강희	
이경언	마이더스정보통신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이경호	대경 ENG

성명	회사명
이광해	아사다라 한우셀프센터
이기백	대구성서초등학교
이기식	(주)현대스텐
이나은	
이대형	세계실업(주)
이도건	이건알루텍
이도현	
이동건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동관	(주)맛찬들
이동관	매일신문
이동명	
이동열	(주)정원아이앤씨
이동진	(주)선진라이프
이동철	(주)태동건설
이동환	(주)폴토래
이명배	코히프테크
이명현	(주)동광명품도어
이병락	경북대병원 시설과
이병우	HOTEL여기어때 대구역점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이복희	(주)광덕전력
이삼빈	대구계명대학교
이상경	(주)이경산업개발
이상득	태진테크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상완	금오상조의전
이상일	(주)제스코
이상현	(주)화우건축사사무소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순호	백세떡집
이승용	에스와이메디
이승임	방어진 참가자미 범어점
이승현	(주)모든더케어존

성명	회사명
이승현	(주)동서개발
이영순	스마일개발(주)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이영철	
이영후	
이완철	(주)경상관광여행사
이용욱	대경종합주방가전
이우삼	(주)마스윈
이원재	(주)핑거스냅
이윤희	한국알카리수(주) 수성구 대리점
이은준	SJ홀딩스
이은준	광개토병원
이은호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재만	세무법인팔공
이재영	꿈키우다 소아청소년과,
	봄이비인후과 연합의원
이재철	아이엠뱅크
이재표	(주)제이에프
이재형	대구발전동우회 삼익HDS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이정미	아사무역
이정우	(주)안심농장직영식육식당
이정우	대호에어테크
이정현	
이정훈	(주)부성세라믹스
이종건	메이트
이종우	신흥산기
이종우	(주)풍문
이종원	(주)코그
이주안	최연소 엔젤
이주형	제이에이치고은미의원
이준철	태영전기
이준호	호신섬유(주)
이종락	대구영화협회

성명	회사명
이중호	(주)대영알앤티
이지영	
이진백	지엔비오토모빌(주)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이창수	(주)스마트이앤씨
이창환	(주)토담건축사사무소
이철모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이태현	법무법인마음
이태훈	(주)에드애피알스미스
이현	(주)두강, 코디박
이현수	MG새마을금고 대원
이현규	미성회계법인
이형원	일성침장
이형진	하이미트피앤비
이호경	대영에코건설(주)
이화선	화선(주)
이희준	SGI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이희채	이희채건축사사무소
인재현	뽕하노이 삼덕점
임경호	엔에프 경영컨설팅
임광호	광명부부치과의원
임상택	위드고
임수근	달구벌크레인
임익기	(주)브라이트
임종규	영남전기관리(주)
임하랑	
장길화	(주)세안정기
장민석	세무회계 첨성
장병배	상인성당
장세주	(주)한국파크골프
장수미	
장순식	정동전기
장원용	장스폴인
장익현	장익현법률사무소
장정걸	(주)카리스조명

성명	회사명
장정숙	자원환경
장철광	(주)유일
전병규	일신프라스틱(주)
전상규	(주)한미인더스
전성근	SK반야월대리점
전성봉	오케이포인트마트
전성호	(주)전진금속
전용철	(주)근우정공
전재욱	(주)피플데이터
전준석	서울 림 치과
전중달	제이디건설(주)
전진길	(주)다원이앤씨
전한석	거목광고
전해영	(주)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정대식	OK정육
정모경	정원자카텍
정민교	대영채비(주)
정영만	농업회사법인제이아그로(주)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정용화	(주)대서케미칼
정재석	(주)탐메디케어
정재호	초록들코리아(주)
정태균	닥터스영상의학과의원
정택균	스마트치과
정호균	메디피아
정호승	시인
정호용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정회원	(주)동화건설
제승혁	카리즈마 타이어
제현태	고려H한방병원
조광민	삼우공업사
조군삼	대신화물
조대현	두리간병센터

성명	회사명
조두석	(주)에드메이저
조득환	(주)금강알텍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조민성	동영염직(주)
조민지	라벨바즈
조병래	디자인해밀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조성수	(주)에이엘테크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조영래	(주)원형디앤씨
조장형	(주)나래파움
조재봉	(주)한백디앤씨
조재현	
조재희	수월한방병원 침산점
조태근	히아컴퍼니
조혁준	스카이 아카데미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주)
조현호	대흥수지
주기홍	에프앤에스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주동우	(주)존인터내셔널
주동호	(주)젠텍스
진경도	(주)지한즈
차상대	브리즈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주)
차인석	(주)대성엔팩스
채인수	(주)효성텍스타일
천승환	공감손해사정
천자우	(주)에슬린
천종열	(주)윤성건설
천종태	
천주교대구대교구	
천해성	(주)하림조경
최경목	(주)수성정비서비스
최경수	(주)삼익테크
최경식	중산바른신경외과의원

성명	회사명
최고현	MBC
최규락	동양이엘
최길영	영대AMP사무처장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최동욱	(주)한라공영
최명수	오성주류판매(주)
최명환	정건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최미연	아이엠뱅크
최성주	(주)동진금속
최영철	(주)삼코
최오원	(주)이렌트카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최원식	건축사사무소 리더
최유승	(주)윤성산업개발
최윤연	
최은규	대구독립영화협회
최은석	참조은병원
최익진	(주)풍국면
최인철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최인혜	
최인호	(주)명성티엠에스
최일권	현대건설기계대구경북판매
최재호	(주)골든크라운
최종춘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종태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
최중해	동양종합건설(주)
최주열	팔달요양병원
최주희	다지행 법률사무소
최준기	무소 한우농장
최창배	신항도시개발(주)
최태원	대구시풋살연맹
최현환	대구로
최환	더블유에셋(주)
최효욱	(주)월성주택건설

성명	회사명
추화엽	대성크린텍
하승우	하승우 내과
하영구	명진푸드
하윤수	한국공조(주)
하제연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충호	(주)플러스컴
하태준	영진종합건설(주)
하호만	(주)티에스티홀딩스
한도준	삼익키리우(주)
한동엽	방천시장가족족발
한상열	지나인테리어
한영필	(주)에스피코리아
한종건	
허용	(주)에이팜건강
허정수	명진약품
허정호	(주)프리미엄에셋
허진구	(주)일성건설
허흥만	(주)명성골프
현정규	(주)영진기공
형충희	태양인 이제마 한의원
홍국헌	더제이주얼리
홍록환	통신골목1st
홍영수	주식회사 수성AMC
홍원택	고구마기획
홍효정	
화성산업(주) 대외협력팀	
황경동	(주)패션스토리
황신우	(주)신우씨엠건설
황재민	(주)우신산업
황종후	해우랑
황현호	인터테크(주)

성명	회사명
강다훤	
강동진	
강민정	
강석우	
강예동	
강예찬	
강준식	
강지은	
강호영	(주)기안전기통신
강홍규	
강효경	
고병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영훈	
고유정	
고재근	
공남기	
곽정현	LX판토스
구경태	(주)하현주온열건강과학
구본도	렉서스 대구
구학회	덕영치과병원
권미향	
권민석	
권순철	
권영경	MYZ무역
권지웅	
권진희	
금정빈	
기영노	
김가민	
김가은	
김결이	스피치킴교육
김경기	(주)퓨어마인드
김경순	
김광배	(주)애드우드커뮤니케이션즈
김광섭	
김광수	
김규석	

성명	회사명
김기주	
김기태	대구소방본부
김근영	
김남수	
김노영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대구사무소
김대원	명문제약
김도성	롯데웰푸드
김도은	
김도한	
김도현	
김도희	편애편
김동수	비락
김동언	
김동형	한국기상산업협회
김리하	세나투어
김만홍	
김명준	
김민기	
김민수	
김민영	
김민재	
김민철	
김보민	
김사랑	
김상겸	
김상길	서구청
김상도	(주)셀띠꼬
김상우	우경포스
김상일	개인사업
김상희	CJ대한통운 경산센터
김선우	
김선욱	
김성도	대한공업
김성수	하오커 (메세나폴리스점)
김성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김성호	
김성효	태백금속

성명	회사명
김소영	
김소윤	희망약국
김수동	도레이첨단소재
김수성	
김수정	대구오페라하우스
김시윤	인천미송유치원
김시현	농협
김영민	
김영민	화영테크
김영욱	굿락코리아
김영일	아베스정보통신
김영호	(주)이투
김윤섭	캠핑리버
김윤환	에이치테크
김은설	
김은숙	서울떡집
김은지	
김인화	
김재용	(주)한국알파시스템
김재현	대영에코건설(주)
김재환	(주)한일통신
김정민	
김정수	
김정식	
김정식	
김정원	고려 컨설턴트
김정은	
김정현	
김정훈	
김종도	대구시 서구청
김주성	
김준한	덴티스
김준현	
김준희	
김지연	
김지은	
김지혜	주식회사 한결로지스

성명	회사명
김지훈	
김진욱	
김진희	금복주
김창귀	
김창섭	(주)나래시스템
김창휘	
김채섭	매그나칩반도체
김태우	익도관세법인
김태정	
김태진	아이엠뱅크
김태호	
김학건	대명화학
김한우	
김현민	DB손해보험
김현범	VIP축구단
김현승	월앤비전
김현용	
김현준	리서치코리아
김현호	미래혁신정형외과
김형준	한국환경공단
김형호	(주)하츠
김혜민	반디유치원
김혜정	한국밴딩
김호근	아진상사
김홍복	(주)가람
김환용	현대자동차
김효정	
나광무	엘리바덴
남기용	
남유진	
남정국	
남제모	
남희건	현대자동차
노의찬	에스엘
노태열	에스엘테크
노태호	
도경록	

성명	회사명
도기만	삼성생명 대구법인지역단
도성룡	
도영경	
도예준	대한민국 공군
도윤록	주식회사 신광
류경남	(주)런시스템
류성민	
류재훈	대구소방
마승민	
문성윤	
문수현	
문신혜	
문윤광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문재근	한국아쿠르트
문재성	
문재웅	(주)시너지어스
문재호	(주)대산
문제성	아스텍(주)
문준혁	카츠현 동대구점
문희제	
민제홍	
박건일	군위군청
박경원	
박경태	AIG
박경환	
박규태	투페이스옵티칼
박도현	
박동욱	
박미성	
박범석	
박상우	쌍박company
박서아	
박석진	
박선우	
박성택	한국퓨얼셀
박소윤	
박솔비	JW중외제약

성명	회사명
박수빈	
박수정	
박시온	
박시우	
박시현	
박용민	
박은희	유리클
박장훈	
박재욱	
박재웅	성서 동산병원
박재현	갤럭시관광호텔
박종극	성우실업
박종욱	최상의 류안나법무사 사무실
박종필	대호약품
박종혁	
박종호	
박준범	(주)신영엘에스
박준원	
박지성	
박지한	
박지현	
박진규	매일신문
박진수	
박진우	제이디아이테크
박청기	에스케이렌터카(주)
박한얼	
박현정	주식회사JID
박호신	
박홍석	아이덴티티게임
박효근	
박희곤	
배순형	VIP축구단
배윤희	
배일한	그로윈
배창형	양광테크
백권호	영남대학교
백남석	

성명	회사명
백성훈	변호사 민중기. 법무사 김일동 사무소
백진수	
변용덕	스카이물류
사공나영	
서기원	
서다희	
서명옥	
서승열	VIP축구단
서은혜	에이케이테크대구지사
서정민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지역본부
서정순	
서창덕	엠엠티
서해찬	
서형오	
서혜정	
서훈석	
석진욱	미도시시스템
성명근	
성웅	히로텔
소재원	신애상사(주)
손동우	
손일남	
손지현	더월
손형준	
손혜인	
손흥모	
송가연	
송경규	에이스오일
송경한	
송명준	
송병호	
송영빈	
송영빈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송외숙	
송정화	
송지화	
송지환	원진산업
송치완	
송태원	나무파티쉐

성명	회사명
신경철	톤앤툰
신광모	
신서경	우리은행
신세영	
신인규	
신재민	LG전자
신재은	아레텍 주식회사
신중현	소노인터내셔널
신형섭	KB국민은행
심남호	월덱스
안겸	(주)오토탑
안인호	
안재선	
안진웅	
안태윤	(주)해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양다혜	
엄태연	
염승중	
오경희	
오범석	경상공고
오승준	
오정아	
오준오	
오지현	주식회사 엘림
오진석	구지중학교
오해윤	
옥진호	대륙 기초건설
우순월	
우창윤	도담한의원
유경금	
유왕석	대구FC 그라지예
유하림	
유현재	
유호승	한라봉 유니이티드
육소정	대구FC
윤강철	
윤명수	
윤병인	대구간송미술관
윤보람	서비스탑

성명	회사명
윤선헌	
윤연옥	지엘플러스
윤원섭	에쓰오일
윤재현	
윤찬영	
윤천수	VIP축구단
윤희준	바젤
은준기	법무법인 창비
이강문	
이경섭	
이경아	나사렛종합병원
이경우	
이경현	동원로엑스
이경호	
이규원	
이규진	(주)제일종합특수강
이규하	동영폐차산업(주)
이규현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이기택	
이다교	센트로꿈을심는연합치과
이다영	
이동우	
이동욱	동아대학교
이동호	동호디자인
이동호	금복주
이동훈	
이래현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 교사
이명희	
이미경	
이민경	
이민수	
이병현	주류상회be대구수성점
이상기	모텔 붐
이상대	
이상민	대동 인텍스
이상윤	전우조컴퍼니
이상진	삼성화재
이상혁	명가

성명	회사명
이상훈	
이상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이상희	
이서울	
이석민	
이석형	
이석화	
이성길	
이성백	VIP축구단
이성진	
이소정	
이수안	Yes치과기공소
이승수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승아	
이승재	화성산업
이시우	
이시행	밀양시청
이영빈	팔봉
이영주	루시드
이영준	
이옥희	
이원수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이인영	서민숯불구이
이인혁	
이재원	
이재필	
이재훈	브라이트 테스트중...
이재훈	
이재훈	GS25동대구디어엘로점
이정원	(주)건동
이정혁	
이종길	금성농협 가음지점
이종원	
이종호	
이종훈	안심분한의원
이주아	
이주용	북성신용협동조합
이준희	
이지혜	키즈샘교육연구소

성명	회사명
이진우	
이창형	
이창환	가아축산
이하영	
이해동	
이현준	삼성전자
이현호	
이형석	Emart
이희숙	(주)우진설비
이희연	조은안과의원
임상한	
임소명	
임송환	금융권
임수환	
임유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임희주	드림병원
장규영	두산공작기계
장나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장나원	고아라뷰티
장문수	
장민준	
장성곤	
장연주	
장영래	
장원석	
장윤영	카츠현 동대구점
장재민	
장준영	
장지은	
장현찬	ABIMAN ENG
전강욱	조아전자(주)
전상범	
전성진	신양정밀
전성호	
전우찬	(주)해밀
전은실	
전은찬	
전재현	
전태진	

성명	회사명
전해신	VIP축구단
전혜지	
정구환	
정동호	
정동훈	
정병수	
정병훈	이마트
정서경	
정성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세준	일본전기 서울사무소
정승호	
정영록	북현중학교
정우영	
정운주	한국항공
정원효	
정유진	
정윤민	
정은상	
정재민	브이성형외과
정종엽	
정종율	대구시청
정현주	태경레이저
정휴채	공덕설비주식회사
정희석	
정희원	동북보건지소
정희진	
제우준	제반드로
조규현	
조남혁	
조동진	VIP축구단
조민경	
조민수	대성가구
조승범	
조영래	
조영석	
조영재	테라체
조윤진	
조일현	경북대학교
조정완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조재건		최의택	달서구축구협회	황혜지	
주명희		최이갑		황호곤	
주승윤		최재락	지에이코리아(주) 행복플러스지사		
주현우	M금융서비스	최현수			
주혜빈		최현경			
지현우	자영업	최혜윤			
진성록	영남이공대학교	최호일	법무부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최희윤	국민대학교총동문회		
진형록		태해석	VIP축구단		
차대욱	네오테크	피성환			
차승화		하승민	고려대학교		
차재원		하종찬	아이씨로지스		
차효준	씨앗과땀	하주홍	대구교도소		
채근석	부경상사	하현지			
채명신	경산시청 토지정보과	한근수			
채현미		한동애	시크릿		
천서연	에스베르	한동주			
천의강		한병준	태화디앤씨		
최금옥		한승욱	한국은행		
최기진	디에스피이엔지	한종건	바르미 호텔인터불고대구		
최동호	성화중학교	한종성	GS리테일		
최두환		한현화			
최만석	신앙과 역사문제 연구소	허난영	(주)캔유여행사		
최병길	종부집칼국수	허재	SK하이닉스		
최병천	진성테크	허준서			
최서현		현병철	대구광역시청		
최서현		현승욱	대구그린파워		
최석용	경창산업(주)	홍성혁	아이디온한국협농		
최석호		홍성호	무브인터렉티브		
최송화		홍재범	구병원		
최승환	지멘스 헬시니어스(주)	홍종욱	동우크린		
최영준	슈콤마보니 롯데대구점	황덕현			
최영찬	미성섬유	황미하	노보노디스크제약		
최용대	대진공업사	황민규	디자인업		
최우영	삼성생명서비스	황상수	(주)케에텍		
최원식	경희한의원	황성희	벤디스		
최육사	(주)네오플	황승준	삼삼종합건설		
최윤지	(사)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황유빈			
최은주		황지성			

대구FC *Angel Club* 명예 엔젤

성명	회사명
문희갑	전 대구시장
조해녕	전 대구시장
김범일	전 대구시장
권영진	전 대구시장
조광래	대구FC
강봉준	글꼴연구소 붓소리
아니엘리	세징야 부인
박정일	대구FC 장내 아나운서
황병우	아이엠뱅크
이윤경	성악가
이근호	전 대구FC 선수

대구FC *Angel Club* 재능기부 엔젤

성명	회사명
안유학	와이디자인랩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김흥만	엔젤클럽 홍보작가
박익진	엔젤클럽 홍보작가
유병완	엔젤클럽 홍보작가
김령경	이지컴퍼니(주)

대구FC *Angel Club* 앰배서더

성명	회사명
정호승	시인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축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2025년에도 엔젤클럽은 다시 한번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전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같습니다.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구의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의 실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가입문의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전화 053-602-7307

☎ 팩스 053-602-7306

대구FC엔젤클럽 홈페이지

www.dgfcangel1004.co.kr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되면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후원금 납부

- 다이아몬드 1,000만 원 이상
- 일반 100만 원 이상 / 자동이체의 경우 월 83,000원
- 엔시오 12만 원 이상 / 월 10,000원 ※ 엔시오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든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 i뱅크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엔젤 릴레이

- 릴레이 방식으로 추천

홍경기 직접관람 응원

- 대구FC 홍경기 시 엔젤존 운영(대구i뱅크파크 W1, W2, W3)
- ※ 엔젤존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종 엔젤클럽 행사 참여

- 엔젤클럽 회원으로 대구FC 홍보 활동 적극 참여 권유



가입신청서

※ 가입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명					가입번호		
회사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주소	※ 우편물 수령 주소						
E-mail					추천인		

후원 금액

- ☐ 월 83,000원 - 자동이체
☐ 1,000,000원 -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 1,000,000원 이상 - 사무국 문의

※ 후원금은 대구FC 계좌로 입금되며, 경비처리 관련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법

-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iM뱅크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 카드결제 시 사무국으로 통보바랍니다.
☐ 자동 이체 : 예금주 : _____ 생년월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엔젤클럽 회원 추천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주위의 뜻있는 분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한다.
※ 추천인이 있을 경우 엔젤클럽 사무국(아래 연락처 참조)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42064)
- 팩스 송부 : 053-602-7306, 메일주소 daeguangel@naver.com
- ※ 문의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구FC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FC엔젤클럽

신청인

(인)



금복주의 지역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지역 참종은 소주



금복재단 지역사회 환원 사업비 누적액

249억 7천4백만원

[2024년 12월 31일 현재]

※ 광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암역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제조/판매 (주)금복주



[Handwritten signature]